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03

오늘의 마켓 지수
(오전 10시 30분 현재)

KOSPI	2,134.30	▲	4.23
코스닥	503.74	▲	6.56
환율			
· 달러	1,057.00원		0.00
· 엔	1,335.78원	▼	2.53
· 유로	1,497.35원	▼	7.08

KDB산은금융그룹
대우증권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제198호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 상투 잡을까 망설여지지만…

金 투자, 지금도 늦지않았다



상반기에만 10% 이상 껑충
투자 수익률 18%대 치솟아
인플레이션 완화 기미없어
하반기에도 금 수요 계속
전문가 "쏠림투자는 위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 투자 상품의 수익률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금리에 낮은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소비자에게 금 투자는 귀가 솔깃하지만 치솟는 금값이 부담스럽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에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돼 지금 투자에 뛰어들어도 좋은 수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금 투자 상품은 연 20% 정도의 수익을 냈다. 금에 직접 투자한 뒤 통장에 적립해 주는 등의 상품이었다. 이외에도 금 펀드, 미니금선물, 금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올초 금값에 대한 전망을 하락으로 돌렸다. 지난해 너무 오른 탓이다.

박현후 국민은행 골드트레이더는 "올해 경제가 회복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도 예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 금값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국제 금 시세는 올 상반기에만 연초 온스 당 1420달러에서 1580달러대로 10% 이상 올라 금 투자 상품 수익률도 오름세다.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14~15% 수준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8%대로 올랐다.

금 선물과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A'는 올들어 10.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시에 상장된 관련 ETF 중에선 'KODEX 골드선물(H)'이 올해 들어 11.82% 올랐다.

"주식은 상승기에 팔아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 금 투자에 맞지 않을 듯 하다. 각 투자사들이 하반기에도 상승을 점치고 있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은 인플레이션을 헷지(위험회피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자산에 대한 대체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하반기에 전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없어 금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선영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과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값이 상승을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투자든 쏠림 투자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금값이 뛰니 한국은행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비중에서 7년째 금은 제자리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금값 상승세 어디까지

안전자산 선호심리…"2000달러 갈 것"

국내 소매가도 역대최고
어제 한돈에 21만7200원

금값이 파죽지세다. 유럽과 미국 등 양대륙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4일(현지시간) 8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3.80달러(0.2%) 오른 온스당 1589.30달러로 마감했다.

국제 금값은 이달 들어 1일 하루를 제외하고 9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상승폭은 10%를 넘었다. 지난해 9월 온스당 12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금값 역시 천정부지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금 소매가는 살 때 기준으로 3.75g(1돈)에 21만72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가격이다.

금값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인 높다는 평가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투기등급으로 강등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3차 양적완화와 관련된 발언과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달러는 이날 주요 통화에 대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달러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하고 있다.

금은 주식이나 통화 등의 투자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시장에는 금값이 조만간 1600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연말에 175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최고가는 2000달러를 크게 뛰어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수문 연 팔당댐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14일 오후 경기도 하남의 팔당댐이 수문을 열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오락가락하며 이어지는 비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팔당/임영무 기자 darkroom519@

'ELW 수사' 역차별 논란

〈주식워런트증권〉

"외국계 기관투자가도 전용회선 쓰는데…" 수사대상 제외

검찰의 ELW(주식워런트증권) 수사가 외국계 기관투자가는 비켜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검찰이 스캘퍼에 제공한 전용회선이 시장 공정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12개 증권사 사장을 소환조사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기관투자가는 여전히 전용회선을 통해 ELW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기관투자가는 검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풍지대인 셈이다. 이번 검찰수사의 핵심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직접전용주문(DMA) 회선 서비스의 정당성 여부이다. 자본시장법 178조 제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해석차이를 놓고 증권사와 검찰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하지만 문제는 외국계 기관투자가다. 'ELW 기소' 사태로 국내 증권사들의 잔뜩 몸을 움츠리며 특정 개인에 대한 DMA회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외국계 기관투자자가는 여전히 국내 증권사 전용선을 통해 이른바 '특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채널운영팀 한 관계자는 "선물·옵션거래 뿐 만이 아니라 파생상품시장 전반에서 대부분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시스템트레이딩을 통해 국내 증권사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검찰수사에서 외국계 계좌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기덕 기자 kiduk@

▶2면에 계속

오늘의 이투데이

당신도 고수 5면
자동차 프레스티지 마케팅

최고 인재기업의 비밀 7면
R&D인력 올인 '로열더치셸'



"정부 기업정책 신중하게 해달라"
이희범 경총 회장 21면

한은, 성장률 전망 더 낮췄다

기존 4.5→4.3%…소비자 물가는 4%로 올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0%로 높였다.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하향했다. ▶관련기사 3면

한은은 15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 때 제시한 3.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3.8%로 전망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5%로 내다봤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연간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안경주 기자 ahnkj@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작 「아델 블로흐 바우어 부인」(1907)

종근당

제품이 다르니까, 효과도 다릅니다
명작과 펜잘큐의 만남

피린계 성분이 없는 두통약-펜잘큐

뭐니뭐니해도 두통약은 효과입니다.
개운함이 확실해야 좋은 두통약입니다.
펜잘큐는 피린계성분이 없는 두통약입니다.

두통·치통·생리통에
펜잘큐정



• 펜잘큐정 효능 효과 : 두통, 치통, 생리통 등

광고심의필 : 1072-0501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업 SC제일은행 '뱅크런' 조짐

18일만에 1조원 빠져나가… 한은 '긴장'

43개지점 임시 폐쇄 후 고객 불안 커져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이 노동조합의 파업 이후 뱅크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1조원 가량의 예금이 인출됐다.

특히 지난 11일 43개의 지점을 임시 폐쇄한 뒤 예금 인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11~13일 3일 동안 인출된 예금은 4000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개인 고객 예금이 차지했다. 영업점 축소로 고객의 불안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예금 인출 규모가 들쑥날쑥 했지만 지점 축소 이후 커져 현장 검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일부터 현장 조사인력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추가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다. SC제일은행도 예금인출과 관련 단계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은행이 자금 경색이 처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SC제일은행의 예금 추이를 매일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은 관계자는 "14일부터는 예금 인출 규모가 줄었다"며 "아직까지 유동성을 지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빠진 8000억원은 SC제일은행의 지난 2010년 말 기준 총 수신 금액인 45조9490억원의 2.2% 수준이다. SC제일은행 수신이 1년 동안 4조609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한 해 증가분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예금이 인출된 것이다.

한미은행의 2004년 파업 당시에도 3일 동안 5805억원의 수신이 감소했다.

한편 SC제일은행 파업은 15일로 19일째를 맞으며 은행권 최장기 파업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사측은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철회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노조의 속초 파업 현장을 찾으며 SC제일은행 파업 사태가 정치권에까지 확산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3사 CEO들은 14일 시내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인하 등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채 KT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총괄 사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철 LGU+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 만나 무슨 말 했나

통신요금 인하 기업 자율에

마케팅 경쟁 자제 당부

강경입장서 한발 물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마케팅 경쟁 자제와 통신요금 인하 노력 등을 당부했다.

이는 당초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추가 서비스 못하게 한다는 초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통신요금 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스스로 방안을 강구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통신사들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마케팅 경쟁 과열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신요금 인하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며 "각 기업이 경쟁 상황을 봐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장,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등 일련의 상황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통신요금 인하 부문에서 약간의 숨통을 터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강제적 요금 인하보다는 중소통신사로 구성된 MVNO, 올 하반기 등장을 예고한 제4이통사를 통한 경쟁방식의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한·EU "외국기업 차별없이 법 집행"

공정위, 양국 경쟁정책協서 국제카르텔 사건처리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5일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시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법을 집행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청사에서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경쟁담당 부위원장과 한·EU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양측은 또 다국적 M&A(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세계 경쟁당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EU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액은 약 6474억원으로, D램 가격담합건(2010년 5월 2965억원), LCD 가격담합건(2010년 12월 3천232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로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며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mint@

ELW 수사 역차별 논란

▶1면서 계속

더욱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와 스캘퍼가 유착 돼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검찰의 문제제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ELW 사건의 경우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 △방화벽 등을 거치지 않고 주문이 최초로 접수되는 BEP(Back End Processor) 서버, 증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FEP(Front End Processor) 서버 별도 설치 △주문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일부만 체크토록(가원장) 허용한 것 등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파생상품 운영팀 한 관계자는 "만약 개인투자자에게 똑같이 전용회선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스캘퍼가 직접 알고리즘 매매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반투자자와는 이미 '하늘과 땅 차이'라며, 시장은 스캘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제원당가 들썩… 제당업계 '비상'

t당 644달러 돌파… 원가압력에 재인상 시기 고민

국제 원당 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t당 644.2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국내 제당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11일 t당 588.6달러 였던 원당가격이 약 9.4% 상승했다. 상반기 국제 원당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평균 11% 상승해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인상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 3월 제당업체들의 설탕가격 인상을 했지만 6월 이후 원당가격이 재상승하면서 설탕 가격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는 브라질과 호주 생산 차질 여파로 기본적으로 4분기 전까지는 원당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당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소매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는"CJ제일제당은 3년째 설탕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 소재 사업은 존폐 위기로 봐야 할 정도"라며 "설탕값 인상 요인은 여전히 많고 언제 올릴 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제당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당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이 폭락하면서 부서 내 회식이 없어진지 3개월째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임원 출장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임원에게 제공되던 차도 회수할지 검토중"이라며 "창립 최대 비상 사태를 맞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한전사장 김중겸씨 유력



한국전력공사의 신임 사장에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전 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김 전 사장을 포함해 민간 기업 출신 사장 3명이 응모했다. 응모자 3명 중에는 김중겸 전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현대건설 사장재직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함께 했다.

한편 한전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기자수첩

치졸한 일본 정부



조 필 현
사회생활부
chop23@

대한항공이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A380 도입을 기념해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 각지에 있는 전 공무원에게 "오는 18일 부터 한 달간 공무상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비행했는데 다른 나라가 민간 항공사에 대해 제재 조치 취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외교부도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공관제상 문제가 없다면 한국 국적기가 한국 영공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롭다" 며 "현재의 양국 관계를 비춰 볼때 일본이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고 강한 입장 표명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감정을 비춰 볼 때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번 언어도단(言語道斷)적 행태는 몇 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극도로 혼란해 진 간 나오토 정부가 야당인 자민당의 공격을 받자 영유권 문제에 강경한 자민당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유치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황당한 듯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외교관들이야 보통 자국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영상 패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인 관광객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본내 정치권 문제를 무마하려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 까지 막말을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도 좀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신대 피해보상, 독도 영유권, 교과서 왜곡 등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망언과 외교적 결례적 행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이번 행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오바마는 협상장 박차고… 버냉키는 '오락가락'

디폴트 시한 임박… 위기의 美 어디로

미국이 총체적 위기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당쟁에 목매고 중앙은행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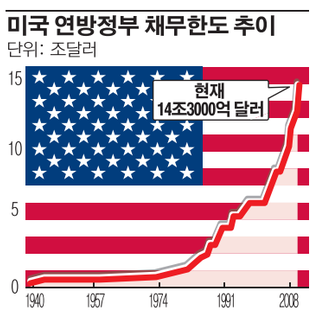
S&P는 14일(현지시간) 현재 'AAA'인 미국 장기신용등급과 'A-1+'인 단기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JP모건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 "아무도 디폴트가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안관과 의회는 정부 채무한도 증액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간에 닷새째 이어진 13일 에



공화당과 부채한도 협상 합의점 못찾아
버냉키는 "추가 부양 없다" 발언 뒤집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S&P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 시킬 것"

S&P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디폴트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3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최고 등급인 'AAA'가 'AA'로 1단계 이상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P는 지난 4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며 신평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무디스는 전일 신평사 중 처음으로 미국의 'Aaa' 등급을 강등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

디폴트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가의 대표적인 대형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디폴트가

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충돌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기까지 했다.

'세금문제는 절대 손대선 안된다'는 입장인 캔터 대표는 일체의 타협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몇개월 시한으로 국채상한을 단기 증액시키되, 내년 대선전에 한번 더 의회 표결을 거치는 2단계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늘리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정략적 태도를 버리라고 켄터 대표를 설득하다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이다.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불확실한 입장도 미국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경기부양을 위한 3차 양적완화(QE3)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은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과 일치하는지 향후 수개월간 지켜볼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에 비해 높아진 물가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단기 경제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면서 "경제가 실제로 회복되는지 보기 위해 현재 추가 조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일 "최근의 경기둔화 양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국채 매입을 통한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강국 미국의 이미지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미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는 '2011 글로벌 인식(Global Attitudes)' 조사에서 조사대상국 22개국 중 15개국 국민 과반수가 이미 또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세계를 이끄는 '슈퍼파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미 경제전문지 포춘은 미국이 제2의 일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미국이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왼쪽) 행정부와 공화당은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불확실한 입장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韓銀도 우울한 하반기 경제전망

"내년 물가도 낙관할 수 없다"
금리 연말까지 3.75%로 올릴듯

올해 4%대 물가상승률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각종 기관 가운데 유일하다시피 3%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해 왔던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3.9%에서 4.0%로 올렸다. 한은은 올해 근원인플레이션율도 3.3%에서 3.5%로 수정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물가가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지난달 말 정부가 물가 전망치를 3%대에서 4%로 대폭 올려 잡은데 이어 물가안정 기관인 한은마저 3%대 전망을 포기해 사실상 올해 '4%대 물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IMF(4.3%), OECD(4.2%), KDI(4.1%), 삼성경제연구소(4.1%), LG경제연구원(4.0%) 등 주요 국책·민간 연구소도 올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내년 물가 전망치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한은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해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상향 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이 3.3%인데, 0.5%포인트 정도가 기저효과"라며 "이를 제외하면 3%대 후반인 약 3.8%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내년에도 물가 오름세가 높다고 평가된다"며 "물가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4.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정부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2차례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 3.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2차례 올려 연말께 연 3.7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SK증권의 염상훈 애널리스트는 15일 "한은 하반기 경제전망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실히 표현했다"면서 "이어 연말 기준금리는 3.75%까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저축銀 국정조사 홍준표 정조준

특위 野의원들 "삼화저축은행서 거액 수수" 의혹 제기
증인신청 요구명단에도 포함… 홍 대표측은 강력 부인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특위)의 화살이 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누게 됐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홍 대표를 지목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야당 의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서 지난해 7.14전당대회와 이번 7.4전당대회 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금액은 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전 청년위원장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증인채택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우제창 특위 민주당 간사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이며, 이전 청년위원장은 조직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면서도"고위관계자는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여당 고위관계자는 홍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15일 기자와 통화에서 홍 대표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홍 대표임을 시인했다.

본지가 입수한 야당의 국정조사특위 증인신청 요구 명단에도 홍 대표의 이름이 올라와있음이 확인됐다. 14일까지 1안(88명)과 2안(99명), 최종안으로 계속 갱신 된 특위 명단 중 이날 결정된 최종안에 홍 대표가 명시됐다.

1안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줄줄이 적시됐지만, 2안에서는 대통령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름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60여명으로 추려진 최종안에서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7명 전원 및 홍 대표가 증인 신청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로 누구도 증인 채택 되지 못한 채 이날 특위는 파행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적극 부인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진위 여부를 묻는 한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나한테 이러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민주당에서) 내 이름 말했어?"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범래 비서실장은 "찌라시에 나온 내용 아니냐"며 "무작정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다"고 파열음을 냈다.

김기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2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은 고사하고, 단 한 푼도 이와 관련하여 당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명절 '떡값'으로 3억원을 인출, 감독당국 인사를 관리해온 정황이 포착되는 등 특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김정권 사무총장 "洪 리더십은 무공해 자연산"

한나라당의 김정권 사무총장은 15일 "홍준표 당 대표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가공되지 않은 무공해 자연산"이라며 "무엇을 감추거나 복선을 깔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소통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당직인선 논란으로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적역구(眞積力久)라는 말처럼 진정성이 쌓여 홍 대표의 리더십이 만들어졌고, 이른 시일 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공천과 관련, "공천 룰은 8월까지 만들겠지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비롯해 현안이 많은 만큼 공천 문제로 시끌시끌 댄다는 건 민생 국회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천 논의는 내년으로 미루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역의원 물갈이 논란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이정현 의원 등이 광주 서구에 출마하겠다는 정신을 보였는데 이런 열정과 치열함이 계기가 돼 이런 사례가 10명 아니 5~6명만 더 있으면 총선을 더 멋지게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시장 찾은 MB "단팥빵 맛있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 한 호떡집에서 단팥빵을 사먹으며 상인들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간 손학규 '머쓱'

한진重선 "뭘 해줄 수 있느냐" 원성 듣고
중소기업인들에겐 '한미 FTA' 압박 받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을 방문해 최대 민생 과제인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노사갈등이 정점에 이른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6월 국회의 시작으로 인해 한달여 동안 중단됐던 '희망대장정'의 일환으로 "직접 내려가겠다"는 손 대표의 의지로 성사된 부산행이었다. 부산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손 대표의 부산 방문은 그간 위태로웠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진중공업을 찾은 손 대표는 이재용 사장을 만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방안을 서둘러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조원들에겐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느냐"는 성토만 들어야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것과 비교해 손 대표가 진보진영의 최대과제인 노동현안을 외면하는 듯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한 것이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는 없었다.

부산 저축은행 본점에서는 "손 대표도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도 다녀온 분 아니냐. 과연 서민들 삶을 아느냐"(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는 비판부터 터졌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흐느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서민들의 아픔을 바꿔나가는데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며 최근 중소기업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손 대표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러나 여기선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문제가 불거졌다.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입장과는 정반대로 "한-유럽연합(EU) FTA 처리로 EU 쪽에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 FTA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일부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부산방문이 야당 대표의 정치적 선명성을 보여주고, 민생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은 손 대표의 득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한진중공업 방문은 야4당과의 통합 화두를 던진 상황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유시민 암초'에 야권통합 위기

"정략에 몰두 통합 걸림돌"
민주·진보신당 등 손사래



야권의 통합 구상이 '유시민'이라는 난제를 맞아 좌초 위기에 섰다.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야권 최대 전략(통합을 통한 1대1 맞대결)이 유시민(사진)이란 변수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민노·진보 등 야권의 각 당 내부로부터 파열음의 목소리로 짙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대한 유 대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선 그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27 김해 패배로 모든 것이 어긋났다. 원내 진입 후 대선에 이르러 자신의 경쟁력을 무기로 민주당에 지분요구를 하는 일종의 개혁당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패배 책임의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민주당에 백기를 드는 대신 민노당과 합쳐 덩치를 키우려 한다. 여기에 이정희 대표가 말려들면서 다 꼬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민주당을 부정하면서 창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진보정당 통합을 위해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고 다니는데 이는 그들의 창당 정신을 내버린 자기모순"이라고 비하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유 대표는) 야권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좋은 머리로 정략에 몰두할 게 아니라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절대적 과제인데 유 대표로 인해 모든 것이 헝클어졌다"면서 "권영길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막고자 했던 권력투쟁이 한층 비화됐다"고 털어놨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에게 "유 대표가 진보정당 통합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 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둘 다 흔들고 있다"면서 "민노당만 접촉하면서 '조승수 대표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정체성 사과에 앞서 진보신당과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 진영을 한데 묶고 있는 시민주권 내에서조차 "이젠 유시민과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유 대표가 지난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찾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며 "아직도 원망 대상이 된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오류를 말하기 전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한 데 기인한 측면이 무엇보다 크다.

김기성·심나영 기자 kisung0123@

김 총리 "비정규직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사항이고 노사 각계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양보하고 타협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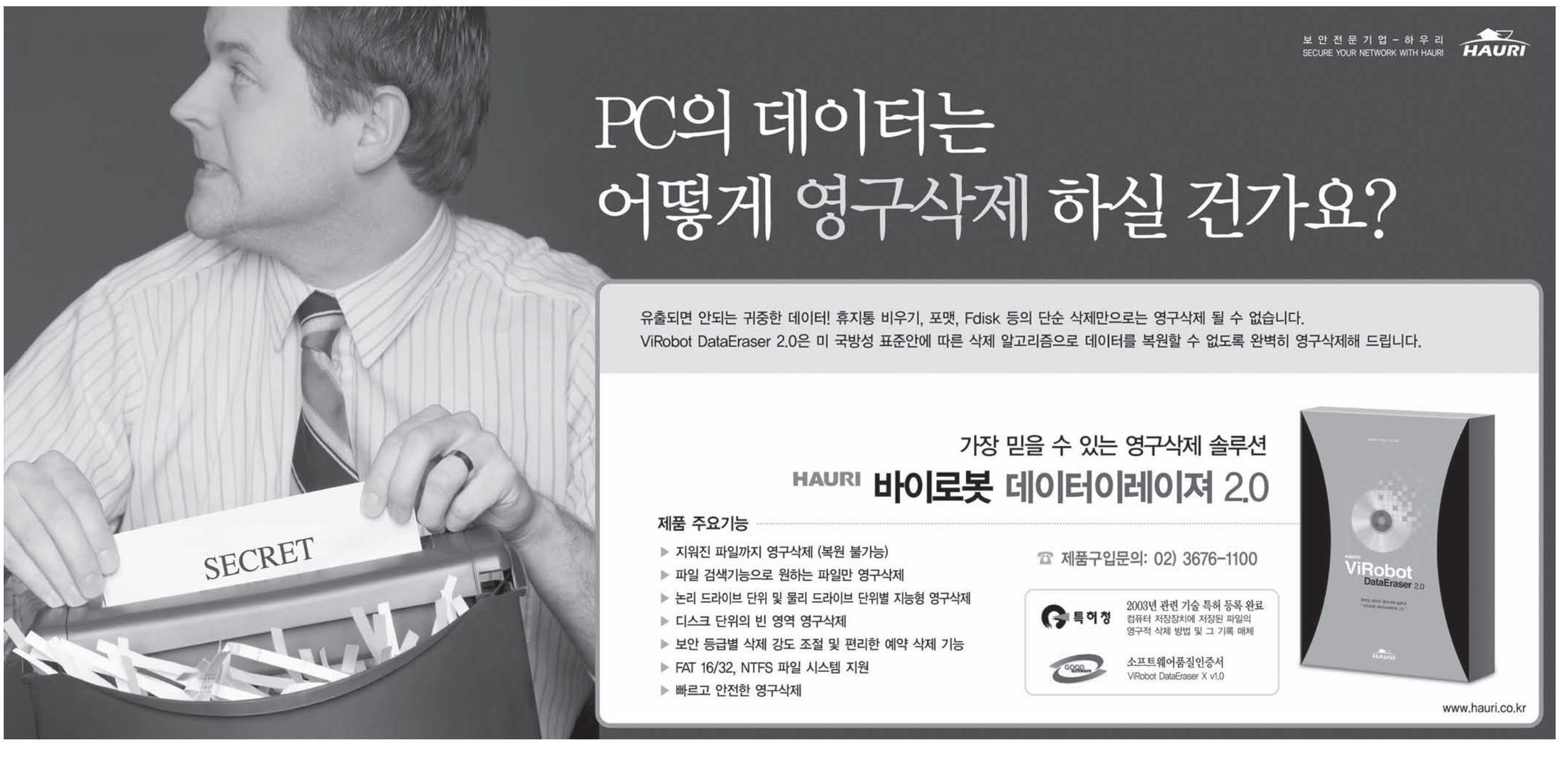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고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차별받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은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차원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휴가철을 맞아 "교통·물놀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계속된 궂은 날씨로 채소값 상승 등 서민 생활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부처는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더 럭셔리한… 슈퍼리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당신도 귀족

⑤ 자동차 프레스티지 마케팅

프레스티지(prestige)란 자동차가 고급화를 추구할 때 도달하는 하나의 궁극점이다. 자동차 산업이 대량생산 시대에 접어들기 전인 1900년대초,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급차 브랜드가 선보였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1대당 판매마진을 높였고 분에 넘치는 고급화를 추구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고급차 열풍은 석유파동 이후다. 급격한 산업혁명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고급차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도 모양새를 보다 차별화했다.

1대의 고급차를 팔기위해 수천명을 만나기보다 그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망고객 10명에게 어필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이른바 '타깃 마케팅'이다.

벤츠·BMW 등 고급차 시장 경쟁 '후끈'
최첨단 편의장비 장착 브랜드 강화 나서
전세계 고객 찾아 다니며 사후 서비스도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3인방은 앞다퉈 12기통 대배기량 엔진에 승용차가 누릴 수 있는 첨단 편의장비를 망라해가며 고급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초호화 브랜드를 부활시키기에 이르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설의 명차 '마이바흐'를 부활시켰고 BMW는 영국왕실 의전차인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인수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롤스로이스의 오너 버전인 벤틀리를 앞세워 초호화 고급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같은 고급차 마케팅은 분명 여느 자동차와 차별된다. 차를 고르기 위해 홍콩 전시장을 찾거나 특정 오너를 대상으로 한 고급 라운지가 들어서고 있다.

◇마이바흐 "고객님, 일단 홍콩으로 모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부활시킨 전설의 초호화 '마이바흐'는 고급차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배우 배용준 씨 등이 타면서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차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우 뒤쪽 지붕만 개방되는 오픈카 버전 '랜덜렛'을 탄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통해 마이바흐를 구입할 경우 마이바흐 전담 컨설턴트가 직접 예비고객을 찾아간다. 모델 소개부터 마이바흐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 마케팅 임원이 직접 가망고객 몇몇과 함께 홍콩 마이바흐 센터를 찾아 직접 모델을 고르기도 한다. 투어를 다녀온 대부분은 홍콩을 다녀온 뒤 마이바흐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홍콩 리펄스베이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마이바흐 센터는 여느 저택과 겉모습이 다르지 않지만 마이바흐 고객 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마이바흐 전시장은 두터운 셔터를 내리고 있다. 고객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센터 안으로 들어가고 남의 시선을 의식치 않고 마이바흐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다. 이 모든 게 메르세데스-벤츠가 인솔하고 예비 고객을 모신다.

애프터 서비스 역시 특별하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에는 전세계 마이바흐 고객을 찾아다니며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는 전담 테크니션이 존재한다. 비행기를 타고 대륙과 대륙을 넘나다니는 이들을 일컬어 '플라잉 닥터'라고 부른다.

◇전용 라운지를 비롯해 공항 리무진 서비스도 줄이어= BMW 코리아는 플래그십 모델 7시리즈 고객 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BMW 7시리즈 모빌리티 라운지(이하 7 라운지)'를 서울 청담동에 열었다.

7 라운지는 BMW 7시리즈 고객 전용 라운지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고급차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50Li 코리안 아트 에디션이 전시되어 있고 벽면 곳곳에는 사진작가 김중만의 작품도 걸었다.

모든 운영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담당 매니저가 1:1로 관리한다. 특히 일반적인 문화 강좌에서 탈피해 티클래스, 오페라 클래스, 아트 옥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매주 진행하며 7시리즈 고객을 모신다.

공항 의전 서비스도 일반화돼 있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를 위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출·입국때 인천공항까지 왕복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상위 1%의 수퍼 리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은 오늘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기 분주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①BMW그룹 코리아가 7시리즈 고객을 위해 선보인 프라이빗 라운지.

②홍콩 리펄스베이에 자리한 마이바흐 센터.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특별 전시장으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전예약이 필수다. 고객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이바흐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차가 1200대 한정 생산하는 제네시스 프라다를 구입하면 특별히 제작한 전용 트레일러가 수송하는 등 출고 때부터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는다.

현대車 "우리도 니어-럭셔리"

명품브랜드와 손잡고 '제네시스 프라다' 출시
전문 매니저 1:1 상담 등 차별화 마케팅 인기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 뛰어든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고급차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다.

기아차가 스포티를 향해 달리는 동안 현대차는 '니어-럭셔리'를 앞세워 다양한 프리미엄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은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처럼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 출범하는 것과 양상이 다르다.

자체 브랜드의 고급화를 통해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한다는 전략이다.

'모던 프리미엄'을 앞세워 '첨단의 기술력과 패션 명가(名家)의 만남'을 내세웠고 첫 번째 주인공이 제네시스와 프라다의 만남이다.

현대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감성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제네시스 스페셜 버전을 개발했다.

1200대 한정 생산될 예정인 새 모델은 전통과 첨단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시트 한땀 한땀에 프라다의 감성이 녹아들었다.

마케팅 역시 차별화했다. 서울 청담동 복합문화 공간인 비욘드 뮤지엄에 '제네시스 프라다'만의 별도 고객상담 장소를 마련했다.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전문 매니저의 1:1상담 및 시승을 경험할 수 있다. 제네시스 프라자는 출고 때부터 차별화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트레일러를 통해 차를 운반한다.

현대차는 고급차 에쿠스에 제네시스 프라다와 같은 맥락의 '에르메스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스마트폰 특허전쟁’ 분수령 맞다

오늘 애플, HTC 제소사건 예비 판결
삼성·모토로라 등 분쟁기업 이목집중

글로벌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15일(현지시간)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애플이 지난해 3월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환경 관련 20여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HTC를 고소했다.

애플은 또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에 HTC를 자사 특허침해 혐의로 ITC에 추가 제소했다.

ITC는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애플은 삼성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등 다른 기업들과도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애플이 제소한 기업들은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업체들이어서 이번 판결은 구글의 스마트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닌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면서 삼성과 HTC 등 기기업체들이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약점을 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법적 분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재스민 루 애널리스트는 “HTC와 애플의 지난해 소송건과 관련한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특허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HTC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C의 주가는 특허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이번주에만 13% 빠지는 타격을 입은 상태다.

HTC는 지난 4월 애플 건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MS와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HTC가 구글 안드로이드폰 1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MS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의 C.K. 청 애널리스트는 “HTC가 MS에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사실은 안드로이드 OS가 더 이상 제조업체에게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구글은 로열티를 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제공해왔으나 애플과 MS 등이 특허분쟁에서 승리해 로열티를 챙긴다면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청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ITC가 15일(현지시간) 내릴 애플과 HTC의 특허분쟁 예비판결에 대해 세계 스마트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전세계 주요업체 스마트폰. 왼쪽부터 삼성 갤럭시S, 애플 아이폰4, 소니에릭슨 엑스페리아 X10, 리서치인모션의 블랙베리 9700, HTC 디자이어. 블룸버그



“남수단 193번째 유엔 가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남수단의 유엔 가입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남수단은 이날 193번째로 유엔에 가입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주식회사 일본’ 日 탈출 가속화

대지진 후 전력난·세제개혁 지지부진
CEO 40% “3년내 거점 해외로 이전”

일본 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현지시간) 최고경영자(CEO)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엔고와 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년 안에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길 것으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대지진에 따른 전력난과 정치권의 혼란으로 인한 세제 개혁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엔고까지 장기화하면서 더 이상 국내 생산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응답자의 39.3%는 제도나 경영환경이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의 일부 기능을 해외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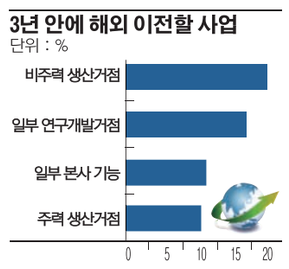
이 가운데 ‘비주력 생산거점’을 옮길 것이라는 응답률은 20.0%로 가장 많았고, ‘일부 연구개발거점’을 이전하겠다는 답변은 17.1%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일부 본사 기능’ ‘주요 생산거점’의 이동이라고 답한 CEO도 10%대에 이르렀다.

CEO들은 대지진 이후 자연 재해로 인한 리스크 증대와 비용 문제, 세계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업체인 도레(Toray)는 오는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한국 탄소섬유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업체 소프트뱅크도 지난 5월말 안정적인 생산기지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이해 데이터센터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확정했다.



전기업체 파나소닉 역시 지난 4월 조달·물류 등 일부 본사 기능을 아시아로 옮길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기업이 일본 국내 거점과 수익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는 50.7%가 ‘전력난 해결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꼽았고, 36.4%는 ‘법인세율 인하’를, 35%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들었다.

일본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72.7%가 ‘올해 안’으로 예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이탈리아 급한 불은 껐지만…

상원 재정긴축안 통과…그리스 사태 해법 못찾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위기 사태의 복병으로 등장한 이탈리아가 긴축안 통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탈리아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표결에서 찬성 161표, 반대 135표, 기권 3표로 긴축안을 가결했다. 규모는 총 480억유로(약 72조2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15일 치러질 하원 투표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긴축안에는 공무원 급여 동결과 지방정부 보조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4.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제로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의 긴축안은 당초 400억유로 규모로 마련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480억유로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유럽 3대 경제구역인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내각은 긴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앞서 지방선거와 원전 부활 국민투표 패배로 빠졌던 위기에서 벗어나 재신임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뚜렷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차 지원 패키지와 관련 민간채권단의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이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유로존 정부들이 합의했다면서 유일한 문제는 참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의 입장 표명은 최근 일부 언론이 민간 부문의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해명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민간채권단이 지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대형국가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IMF는 전일 그리스에 대한 1차 지원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위기 수습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710억유로, 민간채권단이 330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美 펜타곤도 뚫렸다

국방 파일 2만여건
지난 3월 해킹당해

미국 국방부가 해킹 공격을 받아 중요한 국방 관련 파일을 도난당했다.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군의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군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인 미 군수업체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민감한 국방 관련 파일 2만4000건이 지난 3월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린 부장관은 “이번 공격은 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그 해킹 공격 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과거에 비슷한 공격 시 중국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해킹 범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中 희토류 수출쿼터 2배로

하반기 1만5738t으로 확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에 꼬리를 내렸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를 두 배로 늘린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기업 26곳의 올 하반기 수출쿼터를 지난해의 7976t에서 1만5738t으로 높인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로서 올해 전체 희토류 수출쿼터는 지난해의 3만258t과 비슷한 수준인 3만184t을 기록하게 됐다.

중국은 상반기 희토류 수출쿼터는 전년보다 35% 줄였다.

전문가들은 WTO가 지난 5일 중국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 이번 희토류 수출쿼터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은 지난 2009년 아연과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혁신 없으면 미래 없다” R&D 인력 유치에 올인

최고 인재기업의 비밀 ⑥ 로열더치셸

“혁신적인 조직원이 없다면 리더도 없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더치셸은 기술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인재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주일짜리 엔지니어링 캠프 레지던트 과정을 운영하며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인재로 키우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와 기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인턴십도 제공하고 있다.


로열더치셸의 네덜란드 헤이그 본사.

레지던트·인턴십 운영하며 우수학생 선발 육성
핵심두뇌 글로벌 기술센터서 에너지·환경 연구

로열더치셸의 핵심 인재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마련된 독립적인 기술센터의 연구원들이다.

기술센터는 글로벌 주요 시장과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과 가까운 곳에 자리해 전 세계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휴스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및 리스윅, 인도의 방갈로르 등지에 위치한 기술센터는 혁신, 신기술 개발, 기존 기술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오만 카타르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독특한 기술 지원, 지역 활동 등에 집중한다.

기술센터의 인재들은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등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효과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다. 기업 자체의 미래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로열더치셸은 주요 석유기업들 가운데 연구·개발(R&D) 부문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정 에너지 및 고효율 연료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부문에 10억달러(약 1조 577억원)를 쏟아부었다.

로열더치셸은 대학 교수들을 고급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전세계 대학 수백곳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로열더치셸은 지난 1973년 석유위기에 대비해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1980년대 말 소련 붕괴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베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의 대가인 피터 슈워츠의 견해를 받아들인 덕분에 생산 설비 증설이 아닌 정제 효율 개선을 통해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로열더치셸의 대성공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시나리오 플래닝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얼옵션(Real Option)’ 기법과 함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로열더치셸은 기업이 성공하면 현재에 안주하려 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경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시나리오 플래닝

미래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안을 미리 수립하는 경영 기법.

리얼옵션

위험에 대비하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법 가운데 하나. 경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이라는 헤징(위험회피)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석유 제국’ 로열더치셸 ■

세계대전 등 고비 때마다 탁월한 위기관리

100년 전부터 글로벌화 정책 적극 추진
1953년 네덜란드 기업 최초 컴퓨터 도입

세계적인 정유업체 로열더치셸은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와 달리 탁월한 위기관리와 끊임없는 혁신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로열더치셸은 100여년이 넘는 역사 속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의 오일쇼크 등 역경을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혁신으로 극복했다.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와 영국의 ‘셸 트랜스포트’가 지난 1907년 60대40으로 합병하면서 로열더치셸이 탄생한다. 로열더치셸은 창업 초창기부터 적극적인 글로벌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1908년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 시장에 과감히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1910년 러시아, 1911년 이집트, 1913년에는 베네수엘라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지난 1919년 세계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횡단비행에 성공했던 존 앨콕과 아서 브라운이 셸의 항공유를 사용하면서 회사는 명성을 떨쳤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와중에 회사의 주요 자산이 동결되거나 파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종전 후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 석유탐사활동을 전개하고 영국에 새 정유공장을 세우는 등 적극적 확장전략으로 다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 멕시코만에서 지난 1949년에 회사 최초의 해상유전을 세운 후 1955년에는 해상유전 수가 300개로 늘어났다. 로열더치셸은 지난 1953년 네덜란드에서 기업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 사용했을 정도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트힐스에 위치한 로열더치셸 주유소.

로열더치셸은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과 경영환경변화에 대비해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대처하는 시나리오 경영을 도입해 1970년대 석유수출국기구(OECD) 설립과 오일쇼크를 예측하면서 석유업계 7위에서 2위로 도약하는 기염을 토했다.

로열더치셸은 현재 천연가스와 대체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향후 10년간 천연가스 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천연가스 탐사기업인 이스트 리소시스를 인수했다. 로열더치셸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4분의 1이 풍력과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에 투입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로열더치셸 CEO 피터 보서 ■

불도저 경영

5000명 감원 등 살벌한 구조조정
해외 신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로열더치셸의 피터 보서(사진) 최고경영자(CEO)는 그칠 줄 모르는 야욕으로 회사의 성공을 이끌었다.

보서는 살벌한 구조조정과 사업 개편을 통해 실적 부진을 이겨내고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그는 CEO 자리에 오르던 지난 2009년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5000명을 감원하고 1만5000개의 보직을 조정했으며 채굴 용역계약 가격을 인하했다.

보서는 당시 “로열더치셸의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의사 진행 및 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면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큰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순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듬해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이머징마켓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중국 캐나다 카타르 등지로 자원개발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보서는 지난 3월 사업 확장을 위해 향후 4년간 카타르와 캐나다 등의 신규 프로젝트에 1000억달러(약 105조77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로열더치셸은 오는 2014년까지 하루 370만배럴의 원유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한 규모다.

로열더치셸은 현재 신규 프로젝트 20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원유생산 하루 80만배럴 이상, 내년에는 하루 350만배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스위스 태생인 보서는 지난 1982년 로열더치셸에 합류해 여러나라 지사의 재무 및 경영부서를 거치며 국제적인 감각을 쌓았다.

2002년에는 스위스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아시아 브라운 보베리로 잠시 자리를 옮겨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을 수행했다. 2004년 로열더치셸로 다시 복귀한 보서는 CFO를 지낸 뒤 2009년 CEO직에 올랐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KS인증 에너지절약 벤처기업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조달청 등록제품 특허등록제품 KMAR ISO9001 한국경제 소비자대상



행복한 가족
건강한 웃음
에어패스의 미래입니다.

품질로 인증받은 에어패스, 우리집의 명품이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 공간마다 느껴지는 웰빙의 향기
가장 빛나는 건강생활명품, 에어패스를 만나보십시오.

자연과 하나되는 에어패스의 제3세대 에너지 절약형 환기유니트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로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환기유니트의 중심에 에어패스가 있습니다.



■바이패스형
AP-500SB
풍 량 : 3단조절
제품크기 : 1110L X 849W X 380H
덕트구경 : 200mm
소 음 : 37dB 이하
열회수율 : 70% 이상



■고효율 아파트 사출형
AP-150LP
풍 량 : 3단조절
제품크기 : 600L X 600W X 250H
덕트구경 : 125mm
소 음 : 40dB 이하
열회수율 : 76% 이상



■고효율 아파트 슬림형
AP-0250LS
풍 량 : 3단조절
제품크기 : 545L X 740W X 240H
덕트구경 : 150mm
소 음 : 40dB 이하
열회수율 : 79% 이상

환기유니트 Airpass 주식회사 에어패스

www.myairpass.com

■서울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83-6번지 TEL:031-942-1313 FAX.942-9813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93-15번지 TEL:062-382-4543 FAX.382-4544
■부산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540-1번지 2층 TEL:051-336-4543 FAX.336-4546
■전주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458-93번지 TEL:063-226-3566 FAX.226-3567
■공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83-6번지 TEL:031-942-1141 FAX.942-3339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팔로 알토 시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비롯해 지역 유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블룸버그

성공하는 리더 곁엔 '끈끈한 동반자' 있었네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분석한 좋은 점 3가지

① 예상 밖 거대이익 창출
② 연합 전선 구축 가능
③ 혼자선 힘든 '악마' 대적

성공한 기업가 등 리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자신만의 꿈과 이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파트너를 공통점으로 꼽았다. 리더의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끈끈한 동반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1인 기업도 파트너의 지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HBR은 강조했다.

HBR은 "파트너는 가족의 연장선이자 목적 달성과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며 파트너가 있어서 좋은 점 3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파트너가 있으면 예상 밖의 거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HBR에 따르면 리더들은 창업 시 기술·능력뿐 아니라 제휴와 연합을 중요시한다.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경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차원의 정보·기술(IT) 산업을 탄생시킨 애플, 페이스북, 이베이, 아마존닷컴 같은 기업들은 영양가 없는 경쟁보다는 더 나은 파트너와의 합병을 원한다.

예를 들어 PC 사업에서 출발한 애플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했다. 통신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앱 개발업체와도 손잡았다. 애플은 현재 세계 스마트폰 업계를 평정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 역시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동기들과 파트너를 이뤄 일궈낸 성공의 결정체다. 3명에서 시작한 페이스북은 현재 7억5000만명의 파트너를 거느린 거대 SNS로 변신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업체 스카이프와 제휴해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선보이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HBR은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점도 파트너가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전했다. 파트너는 리더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거나 회의에 참석해 리더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뿐 아니라 파트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의 역할까지 도맡는다.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 기업일수록 파트너의 역할은 크다.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돈보다 파트너와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HBR는 지적한다.

파트너가 있어서 좋은 세 번째 이유는 혼자선 버거운 '악마(evil)'를 대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혼자선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지만 파트너가 있으면 부정·부패·불편에 맞서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특히 파트너와 단합이 잘 될수록 다루기 힘든 지배층 등 변화 가능한 장애를 극복하기 쉬워진다고 HBR는 말한다. 보수적인 조직, 고집불통 상사, 맘에 안 드는 동료와 같은 걸림돌에 대한 느낌을 파트너와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더는 조직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하게 된다.

HBR은 기업, 사회운동가, 대기업 간부 등을 불문하고 모든 리더에게 최고의 파트너를 갖는 것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페이스북도 '女風당당'

넘버2 샌드버그 COO
성공신화의 일등공신

"여성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도 강한 '우먼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넘버2'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셰릴 샌드버그(41·사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공의 열쇠로 '야망'을 꼽는다.

샌드버그는 지난 5월 뉴욕 버나드 여자대학 졸업식에서 "사회가 여전히 남성위주로 이뤄져 있다"면서 "여성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야망을 가져라"고 강조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야망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망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성공의 격차도 좁힐 수 없다는 것이다.

샌드버그는 마크 주커버그 창업자를 도와 페이스북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다. 그는 세계은행, 세계 최대 컨설팅기관인 맥킨지를 거쳐 미국 재무장관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구글에 몸을 담았다가 페이스북으로 영입돼 주커버그의 오른팔로 눈부시게 활약하며 젊은 여성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샌드버그는 구글에서도 광고판매담당 부사장으로 성장을 이끈 경영진이었다.

페이스북이 대박을 터뜨리게 된데는 주커버그의 사업 아이디어가 크게 주효했지만 그의 약점을 보완해 준 샌드버그의 역할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의 주커버그가 웹사이트와 시스템에 집중하는 한편, 샌드버그는 탁월한 사교력으로 비즈니스 구축과 확장, 대외 관계, 정책 분야를 담당하며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었다.

샌드버그가 구글 등에서 경력을 쌓으며 세계 최대 광고주들과 맺은 돈독한 관계는 페이스북의 매출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중 16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美 CEO 높은 보수비결은

'스톡옵션'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는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비결은 무엇일까.

미 경제전문지 포춘은 CEO들의 보수에서 스톡옵션 비중이 높다는 것이 비결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보수에서 스톱옵션 비중이 높으면 회사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해당 연봉자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족 경영보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활성화한 미국은 우수 인재를 CEO로 영입하려는 쟁탈전이 치열하다. CEO들도 그만큼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스톡옵션 형태의 연봉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다.

포춘, S&P500기업 CEO 조사
성과주 등 주식비중 평균 39%

일례로 미국 S&P500 구성 기업 CEO의 보수는 지난해 28% 올랐는데 그 중 대부분은 스톡옵션 등 주식이 차지했다. 미국 CEO들의 전체 보수에서 스톡옵션과 양도제한부 주식, 성과주 등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9%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업 평균인 22%를 훨씬 웃돌았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CEO의 기본급은 지난해 1달러에 불과했지만 스톡옵션이나 배당금 명목으로 무려 6865만달러(약 745억원)를 챙겼다. 래리 페이지 구글 CEO의 연봉도 1달러에 불과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구글 주식의 가치는 약 200억달러에 달한다.

누노 페르난데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3~2008년 사이 미국 CEO들은 다른 나라 CEO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챙겼다.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을 감안해도 미국 CEO의 연봉은 다른 나라보다 80% 가량 높았다.

포춘은 기관투자자와 사외 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의 CEO들이 특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CEO 연봉에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스톡옵션 등 주식을 연봉으로 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성과와 연봉이 직결, CEO가 실적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페르난데스 교수는 사외 이사가 많은 회사는 CEO 연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사외 이사가 적은 기업 CEO 연봉보다 26% 많다고 지적했다. 사외 이사도 기관투자자들처럼 CEO 보수 형태에 있어 주식을 더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교육혁신기업 「대통령상」 수상

EBS

에듀윌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암기비법 특강, 주택관리사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20제 등
고득점 노하우들이 꽉 차 있는 곳! No.1 에듀윌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무료회원 가입만 해도 펑펑 쏟아지는 통큰 무료혜택!

공인중개사
- 초보수험 가이드 제공
- 기출문제 해설특강 제공
- 전국 온라인 모의고사 제공
- 민법사례/판례 요약집 제공
- 중개사법 암기비법 특강 제공

EBS 주택관리사
- 초보수험 가이드 제공
- 기출문제 해설특강 제공
- 전국 온라인 모의고사 제공
- 핵심테마별 계산문제 특강 등
- O.X 민법핵심 200제 제공

교재 혜택을 더블로, 합격률도 더블로!
공인중개사 평생회원반 더블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11.7.5(화) ~ 2011.7.22(금)

올해 1차 합격, 내년 2차 합격~
1·2차 분리전략으로 합격률도 더블로 높이세요!

혜택1 2011년 교재는 물론 2012년 교재까지 무료제공
혜택2 합격할 때까지 동영상 강의(Full HD 초고화질) 무료제공
혜택3 2012년 8월 31일까지 오프라인 학원 강의도 무료제공

※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에듀윌 교육서비스
자격증 교육 공인중개사/EBS 주택관리사/EBS 사회복지사/EBS 직업상담사/EBS 제과제빵기능사/검정고시/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영어번역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전산세무회계 1·2급/IT자격증 공무원 교육 7급 공무원/9급 공무원/EBS 10급 공무원/EBS 경찰공무원 기업 교육 고용보험 환급과정/컨텐츠 개발·판매/모바일러닝/농산업교육 종합 출판 자격증·공무원 수험교재 및 단행본/월간(인재경영)·월간(시사상식) 학점은행제 교과부 정식인가 학사학위 취득과정(사회복지학/아동학/경영학) 무료교육 어학/취업/경력/리더십/재테크/유망자격증/시사상식

에듀윌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학원 대방 02)815-0600 노원 02)3391-5600 강남 02)534-8234
부평 032)523-0500 계양 032)551-3200 부천 032)326-0100 파주 031)957-8922
주택관리사 학원 대방 02)815-3388 노원 02)3391-5700 부평 032)512-0600
9급공무원 학원 대방 02)825-6677 노원 02)3391-5800 부평 032)529-0100

교육문의 1600-6700 www.eduwill.net

대한민국 평생교육 No.1 에듀윌

긴~ 장마에 '제습家電' 대박났다



2011년형 삼성 '하우젠 스마트 에어컨'

서울에 사는 이지원씨(29)는 긴 장마철에도 집안이 눅눅해질 염려가 없다. 제습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입해 둔 덕에 보송보송한 여름을 나고 있다. 이 씨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냄새·세균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집에선 불쾌지수가 오를 일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제습량 늘린 에어컨·LG-의류 습기 싹 스타일러
전지역서 판매 상승세… 작년보다 매출 3배까지 증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20여 일 가량 지속되며 강수량 관련 각종 기록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산뜻하게 해주는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는 직장인인 지원씨에게 안성맞춤이다. 장마로 옷이 습기에 찼을 때 스타일러가 옷을 산뜻하게 바꿔준다. 제품은 매일 세탁을 하기 부담스러운 의류·눅눅한 수건·침구·인형 등에 활용도가 높다. 작동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사용자가 스팀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습기처럼 급수통에 물을 채워 넣는다. 물이 가득 찼을 때 4~5회 정도 교체하지 않고 스팀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일러는 습기 뿐만 아니라 냄새·세균도 제거한다. 장마철에는 환기가 어려워 옷에 밴 악취를 빼기가 어려운데, 제품이 고민을 해결한다. 옷에 밴 담배 냄새·식당에서 밴 고기냄새 등이 쉽게 사라진다. 세균제거는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는 살균한 옷을 입힐 수 있어 좋다.

장마철에 제격인 가전제품은 거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2011년형 '삼성 하우젠 스마트 에어컨'이다. 이 제품이 장마철 효자 역할을 하는 이유는 대용량 제습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습기가 많은 우리나라 여름 특성을 고려해 일반 에어컨 대비 제습 용량을 2배로 높였다. 제거한 물기는 소비자가 따로 버릴 필요 없이 배관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해, 물통을 따로 비우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외에 공기청정 가능 면적이 일반 에어컨보다 최대 5배 이상 넓어 꿉꿉한 공기를 개선하는 데 좋다.

세탁기 중에도 장마철에 적합한 제품들이 있다. 삼성전자의 '하우젠 버블샷 WR-PJ179CS'는 물 대신 공기로 세탁하는 에어세탁 기능이 있어 꽃가루·황사먼지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다. LG전자의 '트롬 RN1044VA'는 건조겸용 드럼세탁기다. 건조시간이 일반 세탁기 보다 2배 이상 줄어 운용비가 저렴하므로, 잦은 사용에도 부담이 없다는 평가다.

이지원씨처럼 제습기능·공기청정기능 등이 갖춰진 가전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제습기능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에도 제습 관련 기능을 갖춘 상품이 많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LG '트롬 스타일러'

하이마트 관계자는 "제습기는 연중 판매비중이 6월~8월에 90%로 여름에 잘 팔리는 게 기본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긴 장마로 작년 동기 대비 제습기 매출이 3배·에어컨은 2배 증가했다"며 "기존에 제습기 판매가 높았던 제주도·부산·여수 등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등에서도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은 기자 pdaeun777@



권오현 DS총괄사장이 14일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나노시티(반도체 사업장)에서 임직원 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 퇴직자 암투병도 지원

"백혈병 무관" 재조사 발표
종합 건강 시스템 구축 등
논란 잠재우기 적극 나서

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는 14일 경기도 기흥 나노시티(반도체사업장)에서 백혈병 논란에 대한 작업환경 재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재조사를 맡은 미국의 산업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인바이런은 백혈병 등 조혈계암 발병과 작업환경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삼성전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작업장 환경이 백혈병과 연관성이 없더라도 퇴직 후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에게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들에 대한 건강증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반도체 사업장 만을 대상으로 했던 건강연구소의 역할을 향후 전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혀 연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법인화해 국가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등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또 건강연구소 전문인력도 현재 8명에서 오는 2013년까지 23명으로 약 3배 늘려 임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더욱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확인 위험요소(Unknown Risk Factor)'발굴을 위해 산학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글로벌 수준의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의 정기 컨설팅 및 세계적인 산업의학 전문가 들과의 교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직원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 건강 케어 센터를 구축, 입사에서 퇴사까지 홈닥터 수준의 건강 개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센터, 근골격계 예방센터, 휘트니스 센터, 마음건강클리닉 등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진단에서 치료, 운동과 상담 등 개인별로 최첨단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권오현 DS(디바이스솔루션)총괄사장은 "최근 반도체 근무환경 관련 행정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회사는 발병자와 유가족들에게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 놓고 있으며, 퇴직한 임직원 중 암과 같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 발병 상관관계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에 반발, 상급법원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영록 기자 syr@

뉴스브리핑

현대車·中企중앙회 동반성장 협약

현대자동차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에서 내년 완공되는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에 들어설 이 센터는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기술(IT),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 시설이다.

전경련, 법인세 감세등 공식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 공제 유지 등 172건의 세제개선 과제를 제시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계획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올해 임금협상 타결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15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전체 조합원 투표 결과, 총 1만164명 중 1만45명이 투표에 참여해 55.9%(5618명)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지엠의 올해 임금협상은 최종 마무리됐다.

노사는 지난 5월25일 이후 16차례 교섭을 거쳐 지난 11일 △기본급 7만8828원 인상 △성과급 4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2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만원 △직급체계 개선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포스코ICT·한화S&C, 사업 협력

포스코ICT와 한화S&C는 14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허남석 포스코ICT 사장과 진화근 한화S&C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컨버전스형 사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앞으로 산업 자동화, 클라우드 컴퓨팅, 교통·철도, 환경·에너지, LE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 외국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삼성, 특허 전문가 영입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에서 일했던 특허 전문가를 영입했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의 특허 공세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특허 인력 보강을 통해 전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유병호(45) 전 퀄컴 미국 본사 부사장을 기술분석팀 소속 상무로 영입했다. 유 상무는 1999년 모토로라가 한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 소송에서 활약한 것을 계기로 퀄컴에 영입됐다. 2008년엔 퀄컴이 세계 1위 휴대폰 기업 노키아와 벌인 3년여 간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유 상무는 현재 기술분석팀에 근무하며 애플과의 소송전 준비에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한국GM "침수 피해車 특별 AS 해드려요"

수해지역 서비스 캠페인

한국GM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을 대상으로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펼친다.

한국GM은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팀'을 편성해,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해 발생 시 해당지역으로 서비스팀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9월 말(차량 입고일 기준)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서비스팀을 구성해 △침수차량 무상점검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 필터, 휴즈, 벌브류 등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며, 경미한 수해 차량의 시동 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 집중호우 발생 시 비상업무 진행을 위해 관할 관청과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수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구축했다.

정백현 기자 jjeom2@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 / 365일 24시간 전시 한글인터넷주소 : 동아전람

제27회
MBC 건축박람회

참가안내

The 27th MBC Construction EXPO

명 칭 : 제27회 MBC 건축박람회
기 간 : 2011. 9. 1(목) ~ 9. 4(일)
장 소 : KINTEX (일산 킨텍스)

출품대상 및 품목 :
건축자재 / 인테리어 / 바닥재 및 석재 / 전원주택 /
냉 · 난방 및 건축설비 / 조경 / 조명 / 건축정보 / 건축관련제품

주 최 : MBC
주 관 : 동아전람
참가문의 : 동아전람
Tel. 02)780-0366 / Fax. 02)780-0368

*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하시는 분께는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最多관람과 最高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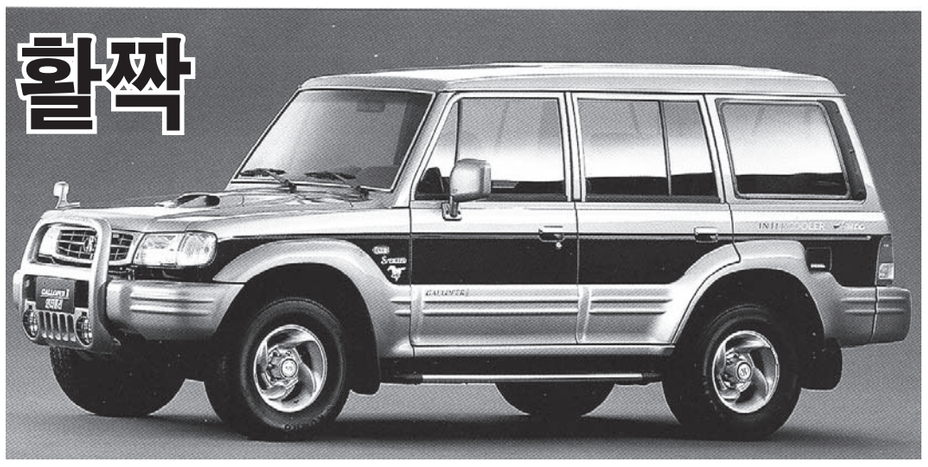
국제적 규모로 커지고 새로워진 MBC 건축박람회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홍보효과와 최고의 마케팅 장소가 될 것입니다.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MBC 건축박람회 참가업체 명단(킨텍스 박람회) 가건대리석, 가나목조주택, 가나제재소, 가린테크, 가림시스템, (주)가온에스피, (주)가시리/가사리방수, 가우스텍(주), 가인디자인그룹, (주)강남, 강남EMS, 강종근의 휴심플주택, (주)거광유브이씨, 거성상역, 거인, 거창스톤사업단, 건우종합건설(주), 건축과환경, 건축세계주택, 게르마늄황토집, 경구로하스산업, 경기도시공사, 경동보일러 판매서비스, 경일산업주, (주)경진이레, 계성기업, 고구려물산(주), 고려전열주, 고오아이엠주, (주)골드쓰리디, 골든이트, (주)공간시스템창호, 광고시장, 광성오토, 광성유리건업(주), 광청, 국제글라스공예, 국제블록보일러, (주)국제하이텍, 귀두리이엠산업, 그랜시스템인테리어, 그룹스유, 그룹리간호, 그리심엔텍, (주)그릭스, (주)그린센추리, (주)그린아이텍, (주)그린중문하우스, (주)그린터치/홍대산업, (유)그린프라자, (주)그린홈테크, 그린환경건설주, 극동산업, (주)근도테크놀러지, 글리스칼라, 글로벌에너, 금단기업, (주)금성산업GSG, (주)금오조경개발, 금일금속(주), 기아조경, (주)나노텍스, 나무문보일러, 나무와나무, (주)나무와사람들, (주)나무와좋은집, 나은이테리어개발, (주)남부, 남흥건축산업, 네오디지털(주), 네오엠텍, 네온테크, (주)네이처리건, 넥센하우징, (주)넥스컴스, 노바아츠, 노블하우스(주), 노블하우스디디어, 노화아이테크놀로지(주), (주)뉴스틸, 뉴스파, (주)뉴젠사우나, 뉴질랜드목조주택건축학교, (주)뉴질랜드홈스, (주)뉴크레에이션, 능전식재(주), (주)다산에이디, 다온상사, 다원정밀, 다인, (주)다일산업(주), 다채움, 다해우역, 대광교역(주), 대교상사, 대루산업(주), 대명인테리세널/robinspa.com, 대보하우징, 대성DSG, 대성벨트에너시스, 대성역자, (주)대성에너지, (주)대성에볼루션, 대성정보기술(주), (주)대연, 대원금속, 대원보일럭, (주)대유아트월, 대은대구공작소, 대정마루, (주)덕진디에스피, 대통우드, (주)대한인터내셔널, 대한건설정보,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화옥개발주, 대한황토방산물주, (주)대현금속, 대형건설, 대호상사, 대흥정밀, 더마크에너지(주)더디, (주)더블유스/주)더디, (주)데블스, 더라이트, (주)더존비즈, (주)데크하우스, (주)덕보세공미, 덕성기업, 덕성보일럭, 덕성하우징, 동양세이지, 동성산업, 동양우드산업, 동우오토시스템, 동원스보일주, 동일세이지, 동일

현대정공 '갤로퍼'… SUV 대중화시대 활짝

반세기를 달려온 한국자동차 〈8〉



갤로퍼는 국내 SUV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1991년 미쓰비시 파제로를 밑그림으로 개발한 갤로퍼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몽구 회장에서 자동차기업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입증시켰다. 사진은 갤로퍼2 롱보디.

2007년, 기아차는 향후 사라질 운명을 지닌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현대차에 인수합병된 이후 플랫폼 통합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수익성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현대차와 차별화된 메리트가 전혀 없었다. 상대적인 브랜드 밸류가 약했고 리오와 스펙트라, 크레도스 등 못생긴 차를 연거푸 내놓으며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기아차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정의선 당시 기아차 사장은 2008 리먼 쇼크가 불거지기 직전, 기아차의 위기극복을 위해 '디자인 경영'을 선언했다. 디자인을 앞세워 당장에 큰 변화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나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대안없는 선택이었다. 정의선 사장이 내세운 '디자인 경영'은 그의 첫 번째 경영시험 무대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 정의선보다 20년 앞서 경영시험대에 오른 정몽구 회장= 정의선 사장보다 약 20년 앞선 1980년대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첫 번째 도전에 나섰다.

당시 현대정공을 이끌었던 정 회장은 모기업 현대자동차와 별개 노선으로 새로운 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나섰다.

당시 공업합리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 차종 다양화에 나선 현대차는 중형차와 준중형차, 고급차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현대차에 없었던 모델이 있었고 현대정공은 그 틈새시장을 노렸다. 바로 SUV 시장이었다.

1980년대말 국내 SUV시장은 쌍용차의 코란도와 코란도 패밀리, 아시아 록스타가 고작이었다. 이제 막 완성차 50만대 시장을 맞은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SUV는 설자리가 없었다.

소형차와 준중형차가 인기를 끌었고 당시 SUV는 고급 대형차에도 못 미치는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SUV라는 용어보다 '지프차'라는 대명사가 더 익숙했던 시절이었다.

이 시점에서 현대정공의 SUV 개발은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현대정공을 이끌었을 당시 측근들에게 '지프형 자동차' 개발과 생산을 지시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대부분 현대차가 공채 1기로 뽑은 엔지니어들이 주축이었다. 1967년 현대차는 본격적인 출범을 시작하며 새로운 연구원을 채용했다.

공채 1기 엔지니어로 입사했던 임승근 현대차 부사장 역시 이들 가운데 한명이었다. 포니를 시작으로 엑셀과 프레스토 개발에 기술을 나눠준 일본 미쓰비시의 SUV 파제로가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당시 파제로는 2세대로 거듭나던 시점이었다. 미쓰비시 입장에서 구형이 된 1세대 파제로의 기술을 현대차에 넘겨도 해가 될 일은 아니었다.

현대정공은 미쓰비시 파제로 1세대를 발빠르게 들여와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현대차의 승합차 그레이스의 디젤 엔진을 가져와 장착했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파제로는 한국형 SUV의 밑그림이 되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1991년 현대차의 첫 SUV인 갤로퍼가 등장한다. 차 길이에 따라 롱보디와 숏보디 두 가지를 선보였고 차 길이 대비 실내공간이 넉넉했던 갤로퍼는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모았다.

> 국내 SUV시장 코란도가 개척
> 1980년대말 MK 車사업 첫도전
> 日 미쓰비시 파제로 벤치마킹
> 틈새시장 공략 적중 인기몰이

당시 기아산업이 갤로퍼와 쌍용차 코란도를 견제해 도심형 SUV 스포티지 컨셉트를 도쿄모터쇼에 선보이긴 했으나 그저 컨셉트일 뿐이었다. 기아는 스포티지를 생산할 광주공장에 조립라인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 코란도는 SUV시장 개척, 갤로퍼는 대중화 이끌다= 갤로퍼는 출시되자마자 현대차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승승장구했다. 분명 현대정공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모델이지만 소비자의 눈에 현대차와 달라보일 게 없었다. 현대정공을 의미하는 찌그러진 형태의 'H'앰블럼이 유일한 차이였다. 앰블럼도 이니셜도 'HYUNDAI'라고 표기한 덕에 현대정공이라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다.

갤로퍼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쌍용차 코란도가 국내 SUV 시장을 개척했다면 현대정공 갤로퍼는 SUV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모델이다. 갤로퍼의 등장으로 자동차사업은 현대정공의 다양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떠올랐다.

갤로퍼 개발의 주역인 임승근 씨(당시 이사)는 이후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 부사장에 올랐고, 이후 기아차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승근 전 현대차 부사장은 현대차와 기아산업의 기술력 격차를 급격하게 줄이고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델을 정리하며 차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 통합작업을 지휘한 주인공이었다.

그가 개발을 주도한 갤로퍼는 승승장구했다. 판매가 늘면서 모델과 엔진도 다양화했다. 이후 현대차 앰블럼으로 바꿔달고 2001년 단종 때까지 갤로퍼는 특유의 투박함을 매력으로 앞세워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갤로퍼를 앞세워 첫 경영시험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몽구 회장은 1995년 자신감을 앞세워 국내 최초의 미니밴 '싼타모(Santamo)'를 출시한다. 밑그림은 역시 미쓰비시, 대상은 미니밴 '샤리오'였다.

콤팩트 스타일과 넓은 실내공간,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7인승 3열 시트 등 요즘 유행하는 다목적 자동차의 조건을 두루 갖춘 차다. 갤로퍼에 이은 싼타모의 데뷔로 현대정공은 RV 전문 메이커로 자리잡기도 했다.

처음 갤로퍼 개발이 시작됐던 1980년대 말은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막 모터라이제이션이 활성화되던 때였다. 당시 국내 SUV 시장은 고작 1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 시장을 노린 정몽구 회장의 배짱은 결국 '현대정공의 성장'과 함께 '한국 SUV시장의 대중화'까지 이끌었다. 동시에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기업의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시도한 기아차의 '디자인 경영'은 20년 앞서 치러진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도전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SUV시장을 향한 정 회장의 도전은 오늘날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차종 다양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김준형 기자 junior@

게임업계 "방학을 기다렸다"

JCE, 소셜게이밍 플랫폼 첫선·주력게임 업그레이드
라이브플렉스·알트윈, 신작 공개 유저 모으기 '온힘'



중소개발사인 초이락게임즈가 개발하고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슈퍼스타K 온라인'이 방송, 공연과 시너지 효과로 조용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 방학 시즌을 앞두고 국내 중견 게임사들이 조용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위 업체들이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불리거나 다수의 킬러 콘텐츠 확보에 성공하면서 게임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 게임사들이 자사의 주력 콘텐츠로 조용한 역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형 퍼블리셔들의 M&A 광풍에도 꿋꿋이 살아남아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JCE다. JCE는 지난 6월29일 인기 축구게임 '프리스타일 풋볼'에 '승부차기 모드'를 추가해 매 경기 승패가 결정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소셜네트워크게임(SNG)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소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JCE는 이미 지난 4월 자체 제작한 소셜게이밍 플랫폼 '네스트'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시간 쪽지 기능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기능도 갖췄다.

JCE의 SNG '룰 더 스카이'는 전세계 일일 접속자수 7만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게임은 지난 6일 네트워크의 품질을 향상시켜 느린 서버 응답 및 네스트 속도 저하 문제를 개선해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내에서 '국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라고 불리는 '천룡팔부2'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게 돼 올해 안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이브플렉스는 자체 개발 MMORPG로 최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6월 대만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라이브플렉스의 '드라고나 온라인'은 동시접속자수 4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최근에는 대만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6번째로 태국에 진출하기도 했다.

라이브플렉스는 지난달 23일 공개서비스를 실시한 퍼블리싱작 '징기스칸 온라인'으로 유저들 공략에 나섰다.

무협게임 '십이지천'으로 잘 알려진 알트원 역시 최근 신작 MMORPG '워렌전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마지막 테스트에 돌입하는 워렌전기는 박진감 넘치는 전쟁의 재미로 첫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이락게임즈가 개발하고 CJ E&M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슈퍼스타K 온라인'은 온라인 노래배틀 게임으로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에 도전할 수 있는 특별 예선을 4주간 게임 내에서 진행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게임사들이 정체된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 규모를 늘리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여름방학 캐주얼 게임의 강세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장마철 '스포츠음료' 불티 왜?

실내 운동 늘어 비수기에도 깜짝 매출
막걸리 소비도 증가… 맥주는 인기 '뚝'

장마가 길어지면서 음료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가 오면 활동성이 떨어져 매출이 줄어드는 커피나 생수, 스포츠 음료 등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 음료업계는 예상치 못한 실적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맥주는 긴 장마에 맥을 못추고 있는 대신 막걸리 매출은 장마 시작 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14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커피, 생수 등의 음료가 매출 신장을 주도하면서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15% 신장했다.

게토레이와 G2를 합한 스포츠 음료 부문은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다. 장마 기간임에 불구하고 지난달 말 까지 누계기준으로 5% 신장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년 대비 매출 신장폭은 탄산음료가 10%, 주스는 5%대였지만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달에는 탄산음료가 5%, 주스는 10%로 역전됐다.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의 지난달 매출이 약 1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 신장했다.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이달에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매출 신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기대하지 못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음료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음료부문이 지난해 대비 8.6% 신장됐다. 특히 이온음료가 전년대비 37.5% 성장하고 지난달 대비 43.8% 신장됐다. 이어 생수가 전년대비 16.8% 성장해 장마철 음료 매출 신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탄산음료는 전년대비 21% 성장했지만 이달 매출은 지난달 대비 0.5% 신장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장마로 강수량이 집중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음료 전체 매출이 전년대비 12.9% 성장했다.

특히 전년대비 수입음료 54.6%, 스포츠음료 38.7%, 생수는 22.0%, 냉장음료 17.5% 매출이 올랐다. 반면 동기간 동안 과즙음료와 탄산기호음료는 다소 내림세로 각각 3.6%, 6.9% 신장했다.

예상 밖 매출에 놀란 음료업계와 달리 맥주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14일 이마트에 따르면 맥주는 장마가 한창인 7월 3~9일에 전주 대비 판매율이 5.9%나 떨어졌다. 6월에도 3.7% 하락했지만 지난해 20% 이상 상승했던 '월드컵 특수'를 감안하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해 더위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맥주 소비가 주춤한 사이 비와 잘떡궁합인 막걸리는 7월 1~13일까지 5.9% 신장했다. 7월 3~9일에도 지난 주에 비해 0.5% 늘어 장마가 길어질 수록 막거리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을 깬 장마철 호실적에 대해 음료업계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실내 운동 비중이 늘어서 물 처럼 마실수 있는 스포츠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무더위가 찾아와야만 꼭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철규·강구귀 기자 yoonck@

K2 "현빈 대신 원빈"

아웃도어 브랜드 새 모델 선정


K2 전속모델 원빈

아웃도어브랜드 K2가 새로운 광고 모델로 원빈을 선정하고 1년간의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K2는 올 봄, 여름 시즌 대중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성공적인 스타마케팅을 전개해왔다. 이에 K2는 가을, 겨울 시즌에도 강인한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며 모든 아웃도어 활동을 아우르는 '토털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인기 배우인 원빈을 모델로 선정했다.

K2는 원빈이 강인한 남성미와 조각 미남의 수려하고 세련된 외모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 K2가 추구하는 스타일리시 아웃도어 패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델로 높이 평가했다.

또한 K2는 원빈을 모델로 선정 함으로써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지닌 대중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등산 아웃도어를 넘어 일상의 캐주얼패션과 스포츠웨어까지 섭렵하는 토털 아웃도어 브랜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jy@

"140억 투자 소비자 권익 강화"
옥션·G마켓 공정거래 협약

옥션과 G마켓이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총 140억원을 투자해 오픈마켓 판매자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강화에 나선다.

옥션·G마켓은 1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결하고 판매자 대표와 함께 '소비자만족자율관리 프로그램' 판매자 합동도입 선포식을 연다.

이 협약을 통해 옥션·G마켓은 판매자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권익강화에 총 14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박주만 옥션·G마켓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해외판매기회, 전통상인 지원 등을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양복에도 '장화'

장마철 남성용 레인부츠도 인기
구두위 착용가능한 덧신도 등장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레인부츠가 남성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꾸미는 남성 일명 '그루밍족'이 등장하면서 남성들이 레인 패션 아이템으로 레인부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장을 즐겨 착용하는 오피스맨들도 기습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장이 짧은 스타일의 레인부츠나 정장용 덧신들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옥션에서는 레인부츠로 유명한 브랜드 '헌터', '라코스테' 등에서 남성용 레인부츠를 속속 선보이면서 관련 제품 판매량이 최근 한 달간 전월 대비 35% 가량 증가했다.

남성용 레인부츠는 여성용 보다 폭이 넓고 기장이 짧다. 색상은 톤 다운된 그린, 블루, 블랙 등이 주를 이루고 벨트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헌터 남성용 미들레인부츠(28만8500원)'는 레인부츠 전체길이가 무릎과 발목 중간 사이에 내려오는 기장에 발폭이 넓은 남성들을 위하여 레인부츠 앞 부분의 폭이 넓다. '라코스테 레인부츠(14만9000원)'는 코팅된 고무로 처리해 방수효과가 뛰어나고 마치 기장이 긴 슬립온 운동화를 연상케 해 청바지나 면바지에 착용하기 좋다.

정장을 즐겨 착용하는 직장인들이 장마철 구두위에 착용할 수 있는 덧신부츠도 등장했다. 고무소재로 만들어져 방수효과가 뛰어나고 모형이 기본 남성구두 스타일로 만들어져 마치 구두를 착용한 느낌을 줘 감쪽같다.

김보연 패션 담당 팀장은 "레인부츠가 남성들에게도 장마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남성들이 평상시에 착용했을 때, 튀지 않고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장마시즌에 레인부츠를 찾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남성용레인부츠

주말 쇼핑가

골프용품 비수기때 싸게 사볼까

갤러리아 골프 브랜드 70% 할인



이번 주말 비싼 골프용품을 싸게 구매하는 찬스가 생겼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유소연 선수 우승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전점에서 유명 골프 브랜드 이월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점은 잭니클라우스, 센터시티는 휠라골프, 슈페리어, 레노마골프, 아베골프, 타임월드점은 슈페리어, 임페리얼, 휠라골프를 진주점은 캘러웨이 휠라골프 등의 브랜드가 참여해 유명 골프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고 70%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상품구입시 상품권도 증정한다. 명품관은 40만원~ 500만원이상, 수원점과 진주점은 20만원 ~ 100만원이상 해당 점포 골프 용품 및 웨어 브랜드 구입 고객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해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장마철 안전용품, 무더위 여름용품도 싸게= G마켓에서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연중 상시 진행하는 'G마켓 자동차용품 상설관'을 열고, 각종 장마철 차량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사이드미러에 빗방울이 맺히는 것을 막아주는 '불스원샷 김서림 방지제 스프레이'(6200원)와 발수코팅 용품인 '루카스 무기질 유리막코팅제'(5만8000원)등이 대표상품이다.

인터파크는 무더운 여름 날씨를 대비해 여름 침구와 자리, 모기장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폴러머젤의 부드러운 촉감과 푹신한 쿠션감으로 여름철 편안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에코쿨매트'가 25% 할인된 1만4850원에 판매한다.

◇아이들에게 운동화와 헬로키티 선물하세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브랜드 패션몰 아이스타일24은 헬로키티 기획전을 마련했다. 생활용품부터 물놀이용품까지 톡톡 튀는 디자인의 키티 제품들을 쇼킹특가 6500원부터 만나 볼 수 있다. MD 추천 상품은 '헬로키티, 얼굴튜브(7500원)'와 '헬로키티, 박스팬선풍기(4만4800원)'이다.

롯데홈쇼핑은 16일 오전 6시 20분 '코오롱 액티브 트래킹화' 3종 세트를 판매한다.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썬캡은 화이트 컬러에 로고 자수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가격은 7만9900원이며, 이날 방송에서 무이자 3개월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선애 기자 lsa@

CJ제일제당 '백설' 매출 3조 도전장

식품 소재 브랜드 출범

CJ제일제당의 설탕 브랜드 '백설'이 식품 소재 전문 브랜드로 바뀌면서 매출 3조원에 도전한다. CJ제일제당은 14일 '백설' 브랜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브랜드 로고를 교체하는 등 브랜드 쇄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965년부터 설탕 브랜드로 백설을 사용해오다 이후 밀가루와 식용유 등 필수 식재료는 물론 다시다와 육가공 제품으로 브랜드 사용을 확대했다.

백설 브랜드는 지난해 매출 기준 1조5000억원을 넘는 국내 최대 식품 메가 브랜드지만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군이 많아지며 차별화된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백설 브랜드를'요리 소재'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

새롭게 조정된 백설의 포트폴리오는 설탕과 올리고당, 밀가루와 프리믹스, 식용유와 참기름을 비롯해 식품, 양념장 등 소스류 전반을 아우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백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대표 요리 소재라는 강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백설은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출시되는 홈베이킹 믹스와 소스, 쌀눈유 부문의 전략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kkk@



당신의 건강 주치의
www.doctorw.kr

365일 쇼핑시즌!
Myseason www.myseason.co.kr

IZUMI
IZUMI BEAUTY PRODUCTS
www.izumikorea.co.kr

산 속 샘물과도 같이 삶의 깊이가 다른 남자...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함의 가치가 다른 남자...

그런 남자에게
주고 싶은 단 한가지...

이즈미 전기면도기 FR-4331
55년 일본 이즈미社의 장인정신으로 만듭니다

WASHABLE
AC/RC

NA-NO
초정밀 면도날

55년 역사의 면도기 전문 생산기업! 전세계 120개국 수출로 인정받은 품질과 기술력! 이제 그 특별함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왕복식 방수 면도기 | FR-4331 |

■제품특징 • 나노 코팅처리된 초정밀 면도날(MADE IN JAPAN)사용 • 얼굴윤곽이 부드러운 곳을 찾아서 면도할 수 있는 쿠션형 입체면도 시스템(무빙헤드) • 센터 슬롯 트리머 채용으로 뛰어난 밀착 면도 • 방수면도기(편리하게 물세척이 가능하고, 위생적 사용)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러운 감촉 • 무선면도 사용을 위한 90분 급속충전 및 75분사용 •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100~240V 50/60Hz 사이의 자동전압 조절 기능 • 배터리 잔량/충전상태/완충전 표시 LED LAMP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멋내기를 위한 트리머 장착 • 저진동 독립상호 구동, 인체공학적 디자인 설계 • 편리하게 제품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는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충전용 배터리A/C • 면도방식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90분 충전 / 무선사용시간 75분(충전+전기식) • AC 100V~240V • 50/60Hz • 중량 : 181g • 구성품 : 본체, 휴대용주머니, AC어댑터, 사용설명서

+

왕복식 포켓형 면도기 | FB-11 |

■제품특징 • 나노 코팅처리된 초정밀 면도날(MADE IN JAPAN)사용 • 사용이 편리한 건전지식 방식 • 휴대가 간편한 포켓형 •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설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러운 감촉 • 저진동 독립상호 구동 • 일 3분 사용시 약 1개월 사용

■제품사양 • 면도방식 : 왕복식 • 건전지식 • 사용시간 : 일 3분 사용, 1개월 • 중량 : 82g • 구성품 : 본체, 브러시, 사용설명서

한국 출시기념 특별판매(1,000대 한정) 왕복식방수면도기 + 왕복식포켓형면도기 : 33,000 X 3(카드3개월무이자)

온라인 주문 www.myseason.co.kr |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949•5555 • 온라인 쇼핑몰 마이시즌 입점문의 02)3444-9238

(주)오래뜰 | 대표 : 최병철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호

총 대출 3252억… 미소금융 안착

2만8728명 혜택… 연체율도 2.5%로 낮아
2년만에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자리 잡아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6월 28일 오전 구로구 구로자율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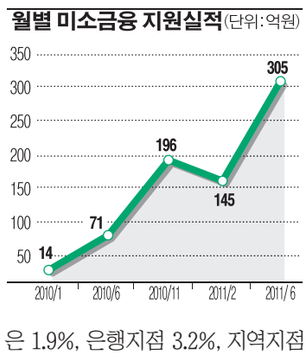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의 대표인 미소금융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기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 김승유 이사장(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짧은 기간에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총 2만8728명에게 2635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미소금융 출범이전 휴면예금관리 재단 지원액까지 포함할 경우 3252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만 총 1481억원을 지원해 연간 목표 2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민들의 자활을 목표로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 때문에 연체율도 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기업지점은 1.9%, 은행지점 3.2%, 지역지점 6.1%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민금융지원에 책임을 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CE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대출을 줄이면 서민금융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뜻 앞서 나서서 이런 제도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소금융의 경우 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이 남다른 애착을 보이면서 시장에 새로운 금융 제도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김승유 이사장은 보여주기식으로 미소금융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최근 외환은행 인수문제로 바쁜 상황에도 미소금융 일이라면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매주 매소금융중앙재단 주간업무회의 주관해 부장들에게 직접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향후 시간이 지나 퇴임을 하더라도 미소금융봉사단의 봉사단원으로라도 백의종군 하겠다는 열의를 밝히기도 했다.

고재인 기자 kji@

금융가 소식

외환銀 '베스트 쵸이스 예금'

외환은행은 주가지수 변동률 조건에 따라 각각 최고 연 6.0% 와 20.0%의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ELD상품인 '베스트 쵸이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지수 변동률 조건에 따라 안정전환형 제450호와 제451호로 나누어 판매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예금기간은 1년이다.

BC카드, DMZ 영화제 후원

BC카드는 14일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BC카드 마케팅 부문장 안병수 상무, DMZ영화제 조재현 집행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자영업자 햇살론 문턱 낮아져

대출심사때 DTI규제 없애
미소금융도 추천제 실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햇살론 종합신용평가모형 도입 통한 대출적합성 및 금액 심사
- –햇살론 대출심사시 DTI 항목 제외
- –햇살론 대출 및 보증 심사 기간 단축
- –대환 대출 목적의 햇살론 대출 한도 상향
- –햇살론 정부 보증지원 비율 95%로 확대 추진
- –미소금융 맞춤형 컨설팅 강화
- –사업성공노하우 전수단 구성

자영업자의 서민대출 이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햇살론의 대출 심사 기준이 더 완화되고, 미소금융은 추천 시스템이 도입된다.

1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햇살론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활성화 계획을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개발, 햇살론 대출금액이나 보증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DTI는 현재 소득과 기존 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반영한 지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 햇살론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약 11개월 동안 1조6000억원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환 대출 목적의 햇살론은 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대출 심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미소금융은 전국 2047개 지점에서 추천제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지자체, 대학, 종교단체 등에서 대출 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남 거제지점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세탁업중앙회, 미용사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17개 자영업단체와 300여개 상인회의 도움을 받아 지원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원협약을 맺은 참여기관을 늘려 채무조정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지난해 700억원에서 올해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득관 기자 dk@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석동 금융위원장 밝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퇴출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미 제시한 기준에 따라 올초 했던 방식대로 9월에 문제의 저축은행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 부임 직후 금융위는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BIS 비율 5% 미만의 부실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했다. 결국 이들 저축은행에 대규모 뱅크런이 터지면서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도 영업정지를 당했다.

올 9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발표되면 이같은 방식으로 부실 저축은행 명단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 1% 미만, 순자산 부족, 경영평가위원회의 정상화 계획 불승인 등 3개 항목을 영업정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저축은행 경영 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BIS비율 1% 미만과 같은 조건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영업정지 대상은 앞서 말한 조건들에 부합하는지를 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권은 적게는 1-2곳, 많게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6-7곳이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후보들이 컨소시엄을 어찌 짜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지 파는 사람일 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주 방식의 매각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우선 봐야한다"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dk@

"휴가가 밉다" 국민銀 모기지론 시들

고정금리 최저 4.8%에도 고객 관심 못끌어

국민은행이 최근 출시한 장기분할 고정금리 상품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출시된 만큼 주목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여름 휴가철이란 계절적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고정금리로 최저 연 4.8%가 적용되는 'KB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모기지론'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14일 기준) 실적은 121억원(198좌). 최저금리 4%대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됐던 점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낮은 가운데 대출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상품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품의 대출 대상은 6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구입자다. 최저금리(우대금리 0.1%P)를 적용받으려면 60㎡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대출기간에 따른 고정금리는 △10년·연 4.9% △15년·연 5.1% △20년·연 5.2% △30년·연 5.3%이다.

기존에 출시됐던 신한은행의 '지금 이대로~ 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과 기업은행의 'IBK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규모에 따른 대출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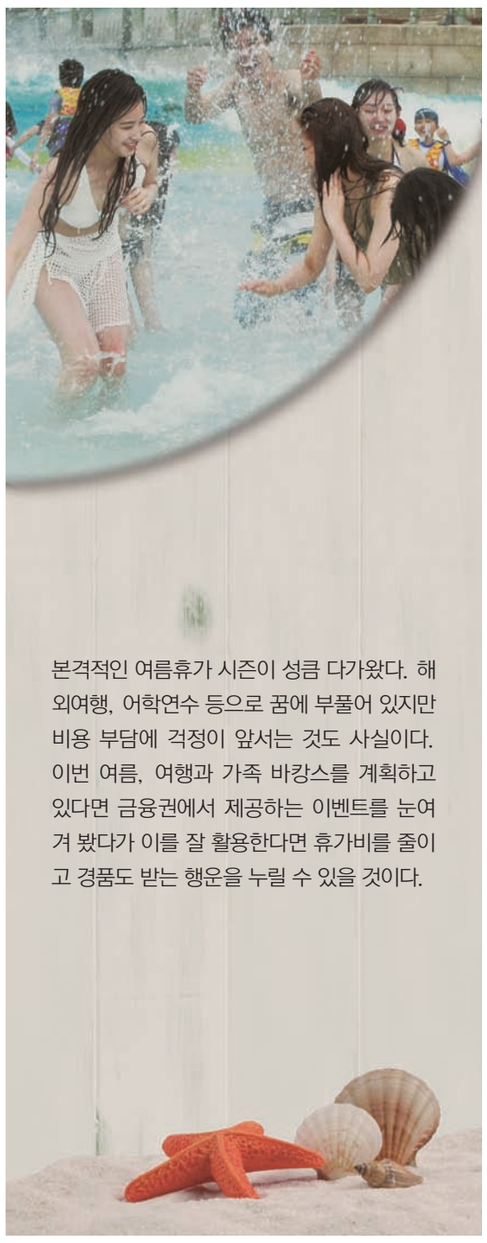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60㎡은 18평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고객이 대상이다"며 "현재 주택거래가 미미한 상황에 대출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장지욱 국민은행 여신상품부 팀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설정했으며 현재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여름휴가철 이후 많이 찾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팀장은 "또한 금리 상승기에 따른 은행 역마진 우려는 시기상조"라며 "10년 후의 금리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은행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은행·카드 이벤트 잘 챙기면 '실속 휴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으로 꿈에 부풀어 있지만 비용 부담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여름, 여행과 가족 바캉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눈여겨 봤다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휴가비를 줄이고 경품도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카드 잘만 써도 혜택 풍부= 카드사들이 풍성한 관련 이벤트를 내놨다. 워터파크 할인은 기본이고 캠핑 이용권도 준다.

KB국민카드는 '여름 바캉스 이벤트'로 모든 신용카드에서 주요 워터파크 할인을 제공한다. 캐리비안베이에서 KB국민카드(KB국민비씨카드 제외)로 입장권 구매 시 본인 30%, 동반 1인 10%할인을 제공한다.

비씨카드는 8월말까지 해당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 1박 2일 캠핑카 렌트이용권, 기프트카드 등 경품을 준다. 전국 주요 16개 워터파크 입장권 구매 시 최대 40%까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S클래스'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휘닉스파크 등 삼성 관계사 및 제휴사에서 S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다.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에서 카드 사용 시 S포인트 3% 적립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국내 대표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 또는 입장권 구입 시 최대 50% 할인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환전 혜택을 누려라=은행들은 해외여행·유학·어학연수·이주 등을 준비하는 환전·송금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은행마다 이벤트 시기와 우대 환율이 조금씩 다른데다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기준도 달라 이용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오는 9월15일까지 최고 7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오는 9월16일까지 전 영업점에서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환전금액에 따라 최고 70%까지 환율을 우대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8월 말까지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수욕장 곳곳서 이동점포 운영=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편안히 볼 수 있도록 은행 업무용 특수차량인 움직이는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대천해수욕장에서 다음달 4일까지 이동점포로 해변은행을 운영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현금입출금과 통장정리, 계좌이체, 송금업무, 상담업무 등 일반 영업점과 동일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말인 토·일요일에도 문을 열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도 대천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 두 곳에서 이동점포인 'KB 모바일 스타'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워터파크·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혜택
해외여행 환전때 최고 70% 환율우대
해수욕장 이동점포선 은행 업무까지

까지다.

하나은행은 이동점포인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운영한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동해 망상해변, 21일부터 27일까지는 경주 캘리포니아비치 워터파크, 29일과 30일엔 부산 해운대, 8월5일부터 7일까지는 인천, 9일부터 12일까지는 양양 등 전국 곳곳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한은행은 강원도 망상 해수욕장과 서해안 만리포 해수욕장 2곳에서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운영하며 농협도 내달 14일까지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안경주 기자 ahnkj@

여름 금융권 이벤트

회사	내용
우리은행	인터넷 환전 고객도 최고 70% 환율 우대
신한은행	최고 70% 환율 우대, 경품제공 행사
하나은행	환전·송금 금액 최대 80% 환율 우대
외환은행	최고 70% 환율우대 혜택과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농협	주요통화 이외 홍콩, 싱가폴 통화도 환전 우대

회사	내용
KB국민카드	주요 워터파크 할인 제공
비씨카드	주요 워터파크 입장권 최대 40%까지 할인 제공
롯데카드	국내선 최대 70%, 국제선 12% 할인
하나SK카드	제휴 여행사 이용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자료: 각 회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마련한 이벤트를 이용하면 휴가비를 절약하고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는 다 마찬가지라고?

"무슨 말씀을…" 업계 할인·적립 차별화 마케팅 분주

주유·항공·골프 등 기업따라 선택 가능

법인카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도 법인시장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법인카드 이용액은 전년대비 20% 성장하는 등 법인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법인카드는 지출을 투명화하는 성격이 강할 뿐 상품 자체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할인·적립 혜택을 늘리고 제휴처를 확대하는 등 법인카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주유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법인카드 'BS 페이버컴퍼니(FAVERCOMPANY)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전국 모든 음식점과 골프장,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항공, 철도 등의 업종에서 0.7%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국내 기업카드 가운데 최고수준인 리터당 6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말 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능을 갖춘 법인카드를 새로 출시했다. '트래블보너스 에어플러스 법인카드'는 신판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트래블보너스 여행센터 이용시 1500원 당 2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트래블보너스 여행센터에서 항공권 및 KTX 승차권,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말 내놓은 법인카드 상품 '마이컴퍼니 카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최근 주유소 할인과 포인트 적립혜택을 담은 기업카드를 출시했다.

단순한 카드사와 회원간의 관계를 벗어나 특별 제휴를 맺고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3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와 제휴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G밸리 발전카드'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이 산업단지 발전 기금으로 적립되며, 단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 병원 등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다양한 할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KB국민카드도 업무택시 전용 기업카드 출시를 위해 지난 3월 '에스택시', '하이콜' 등과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업무택시는 출장시 업무용 차량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후불로 결제하는 택시 서비스다.

고득관 기자 dk@

궁금해? 아하!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

달러가치 점점 떨어지는데…63% 차지
"위안화·금 등 분산 투자" 목소리 높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화와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구성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외환보유액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한 대외지급 준비자산입니다. 일종의 비상 금고인 셈이죠. 투자다변화는 금고에 달러뿐 아니라 여러 통화를 쌓자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탓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통화별 외환보유액 구성은 달러화가 63.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36.3%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은에서는 투자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타 통화의 세세한 비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달러화 비중이 전년보다 0.6% 늘어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촉발했습니다.

한은 역시 한 통화에 쏠렸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위안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 2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의 실천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QFII 자격을 얻는데 최소 2년반이 걸립니다. 자격을 얻는다 해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중국 내 전체 위안화 시장의 3% 가량을 차지하는 거래소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 다변화라는 말을 꺼내기는 어색한 셈이죠. 이에 대해 한은은 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금 투자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외환보유액 중 금의 비중은 0.03%로 미미합니다. 6년여째 70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값이 최근 껑충 뛰니 "금투자 안하고 뭐했냐"는 질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은도 할말은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어서 외환보유액이 적을 때 투자하기 어렵다"며 "2000년대 중반 금의 가격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현대車 '씽씽' 재벌그룹 주가 LG '덜컹'

현대위아·하이스코 100% 이상 급등 호조세
LG, IT계열사 부진… 증권사 목표주가 하향

현대차 그룹과 LG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3인방을 비롯한 대부분 계열사가 앞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반면 LG그룹은 IT계열사들의 부진으로 힘을 잃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 10곳의 연초이후 지난 14일까지 평균 상승률은 51.85%다.

코스피 상승률(2.89%)의 18배 수준이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10곳 중 HMC투자증권을 제외한 9개사는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았고 그 중 8개사는 2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위아와 현대하이스코는 10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종이 올해 들어 22.12%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HMC투자증권(-7.75%)도 선방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LG그룹 11개 계열사의 주가는 평균 6.6% 하락했다. 11개사 중 주가가 오른 곳은 LG상사, LG화학, LG생활건강 등 3곳에 불과했다.

특히 IT관련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LG그룹의 IT기업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3개사의 주가는 평균 32.07% 하락했다.

연초 이후 전기전자업종 하락률(16.18%)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현대차 그룹과 LG그룹 계열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최근 6개월간 12개 증권사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면서 평균 목표주가는 1만5000원 가량 상승했고 현대모비스는 14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려 평균 목표가가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뛰었다. 기아차도 목표주가가 약 3000원 상승했다.

이 밖에 현대위아와 현대하이스코의 목표주가도 끌어올렸다.

증권사들이 최근 6개월간 현대차 그룹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 총189건 중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내린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반대로 LG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끌어내리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LG전자는 9개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내리면서 14만원대이던 목표가는 12만원대로 낮아졌고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도 목표주가가 잇따라 하향됐다. 다만 LG상사와 LG생활건강,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보규 기자 jbk@

현대車 · LG그룹 연초 이후 주가 등락률

현대車

종목명	2011/1/3	2011/7/14	등락률
현대위아	65000	169,000	160
현대하이스코	25,800	53,000	105.43
현대비앤지스틸	11,350	22,200	95.59
기아차	52,500	75,200	43.24
현대모비스	294,500	401,000	36.16
현대차	177,000	238,500	34.75
현대글로비스	151,000	187,500	24.17
현대건설	72,500	87,100	20.14
현대제철	125,500	134,000	6.77
HMC투자증권	20,650	19,050	-7.75

LG그룹

종목명	2011/1/3	2011/7/14	등락률
LG상사	39,300	58,500	48.85
LG화학	390,500	489,500	25.35
LG생활건강	398,000	470,000	18.09
LG생명과학	50,500	46,600	-7.72
GIIR	10,850	9,900	-8.76
LG	87,600	77,700	-11.30
LG하우시스	88,700	73,500	-17.14
LG유플러스	7,210	5,450	-24.41
LG이노텍	136,500	94,200	-30.99
LG디스플레이	40,850	27,850	-31.82
LG전자	120,000	79,900	-33.42

(단위: 원, % / 자료: 에프앤가이드)

바람 잘 날 없는 증권업계

검찰 ELW 수사 이어 금감원 채권값 담합 조사

증권업계가 연이은 사정당국의 조사로 곤혹을 겪고 있다.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을 기소한 데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채권값 담합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15일 "최근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가격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한 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들은 메신저 등을 통해 신고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채권매입자들은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886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에 반해 국민주택채권 매매를 담당한 증권사들은 그들이 사전담합을 통해 설정된 저가에 채권을 매입하고, 다음날 시장가격으로 매도함에 따라 매도대행증권사는 약 328억원, 매수전담증권사는 연간 약 65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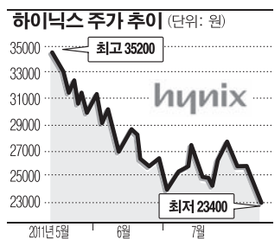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20개 소액채권매수전담증권사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 신고시장가격 사전담합여부를 조사,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업계가 국민주택채권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담합, 통정매매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조사해야 할 증권사의 수가 많아 조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삼성證 '얼리버드 ELS' 삼성증권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를 기초자산으로 최고 연 27%의 수익을 지급하는 '얼리버드(Early Bird) ELS 5937회'를 19일까지 150억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의 굴욕

현대重 인수 포기에
일주일새 2조 증발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하락면서 시총순위에서도 롯데쇼핑에 밀려 15위로 내려앉았다. 14일 하이닉스는 전일보다 2.47%(600원) 내린 2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중공업이 인수 포기를 밝힌 지난 6일 2만8000원이던 주가는 이날까지 7일 거래일 동안 15.6% 하락했고 16조5800억원이던 시가총액도 14조344억원으로 낮아져 2조원이상 사라지면서 롯데쇼핑과 시총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여기에 최근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가 D램과 플래시메모리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다.

홍석조 기자 joe613@

가치주펀드, 드디어 빛보나

월평균 수익률 2.78%
"수익률 개선세 지속"

증시 양극화 현상에 짓눌려 긴 조정을 받았던 가치주펀드들이 수익률 반등에 나서고 있다.

15일 제로인에 따르면 운용순자산 50억원 이상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34개 가치주펀드들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은 2.78%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기간 일반주식형펀드 수익률인 2.43%를 소폭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증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초 평균 수익률이 1%에도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다.

개별 펀드별로는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교보악사위대한중소형벨류 1(주식)Class A 1'가 6.3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에는 이달 초부터 13일 현재까지 2주간 101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어 '칸서스하베스트멀티 1(주식)Class A'(4.90%), '삼성Value 1[주식]_(C 5)'(4.08%), '프랭클린템플턴그로스3(주식)'(4.06%), '신한BNPP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 1[주식](종류C 1)'(4.01%), '템플턴골드적립식 (주식) 1'(3.9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가치주펀드로 손 꼽히는 'KB밸류포커스자(주식)클래스A'(3.69%), '신영마라톤 (주식)A'(2.50%), '한국밸류10년투자1(주식)'(2.06%) 등도 마이너스 수익률 오명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들이 주춤하하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던 가치주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던 가치주펀드들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펀드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아직도 가격적 부담이 낮은 가치주펀드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가치주펀드 1개월 수익률 기준 상위 10개 (단위: %)

펀드명	1개월	6개월	1년	연초후	설정후
교보악사위대한중소형벨류 1(주식)Class A 1	6.39	13.14	47.15	22.53	77.92
칸서스하베스트멀티 1(주식)Class A	4.90	-0.18	21.63	4.25	79.56
삼성Value 1(주식)_(C 5)	4.08	10.89	38.23	15.72	280.03
프랭클린템플턴그로스 3(주식)	4.06	0.61	23.09	4.49	271.40
신한BNPP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 1[주식](종류C 1)	4.01	3.32	28.06	7.26	238.91
템플턴골드적립식 (주식) 1	3.98	0.63	23.01	4.47	308.93
신한BNPP Tops Value 1(주식)(종류_C 1)	3.97	5.64	31.06	9.63	238.97
KB밸류포커스자(주식)클래스A	3.69	2.51	32.91	4.83	74.17
동부진주찾기 1(주식)Class C 1	3.51	2.77	21.69	6.77	145.78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주식)	3.01	0.74	14.12	3.03	79.04

자료: 제로인

상장지수펀드 100종목 돌파

연평균 수익률 10.6%… 'GIANT 현대차그룹' 1위

100개 종목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연평균 수익률이 10.6%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거래소는 7월 12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95개 종목의 수익률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금리(정기예금 기준 연 3~4%)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상장 종목 중 수익률 1위는 GIANT 현대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MKF 현대차그룹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 이 종목은 2008년 12월24일 상장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184.1%, 누적수익률이 469.09%다. 2위는 연평균 수익률 66.8%를 기록한 KODEX 에너지화학이다. 'KRX 에너지화학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고 있으며 2009년 10월 상장된 뒤 누적 수익률은 116.73%에 달한다.

그 뒤는 KIDEX 펀더멘털 대형과 TIGER 현대차그룹+이 이었다. 이들 종목은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상장돼 누적수익률은 2.88%, 16.86%에 그쳤다.

ETF 시장 최초 상장 상품인 KODEX 200과 KOSEF 200의 성적도 좋았다. KODEX 200의 연평균 수익률은 29.7%, 누적수익률은 260%였다. KOSEF 200의 연평균 수익률은 29.7%, 누적수익률은 259.61%다. 두 종목 모두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삼는다.

2002년 10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ETF는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해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된 상품으로 200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채권·레버리지·소비재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며 시장이 활성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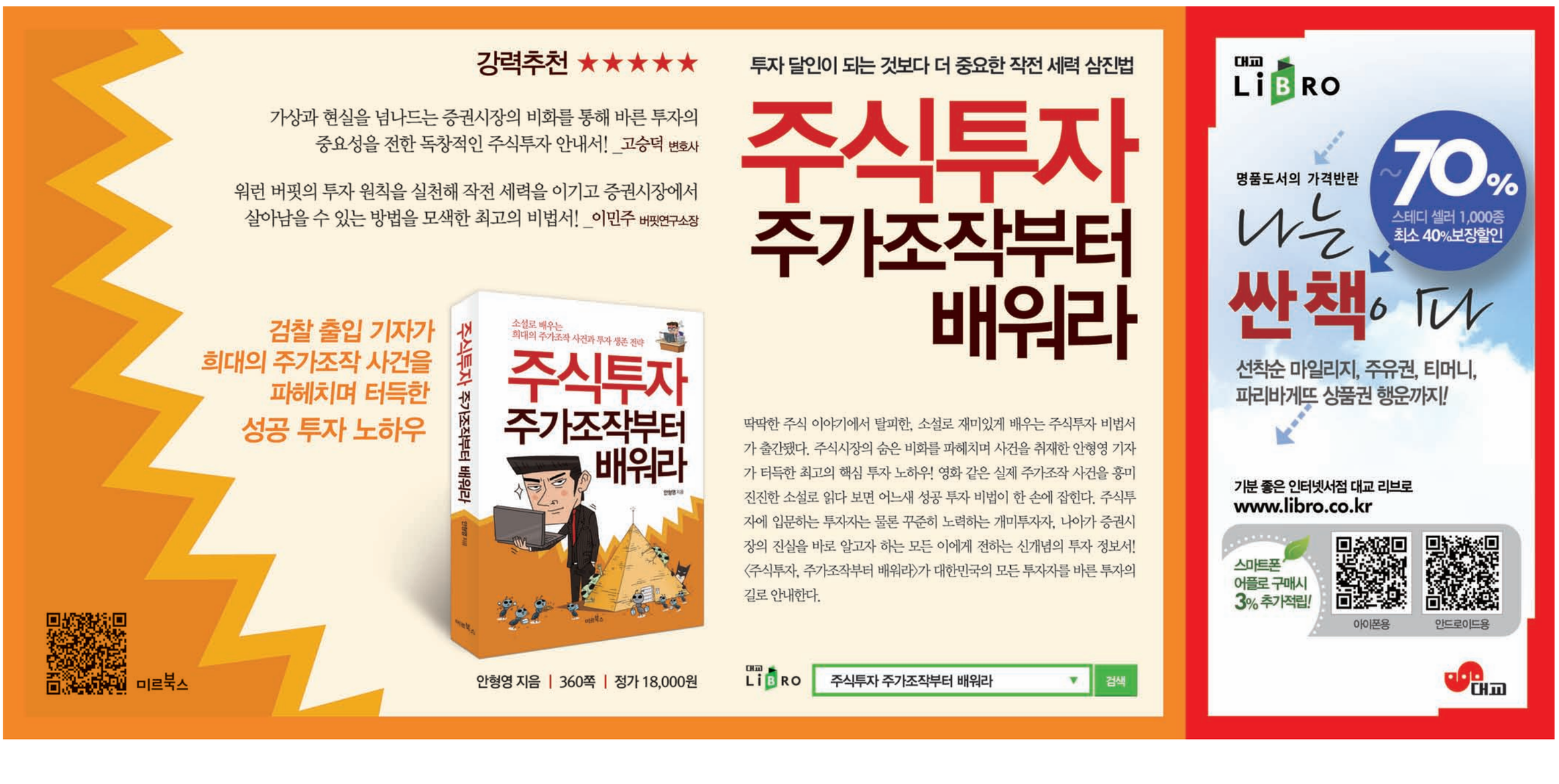
소액 자금으로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점과 낮은 수수료, 세제 혜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아름 기자 radel@

ETF 수익률 상위 20종목

종목명	연평균	누적	운용사
GIANT 현대차그룹	184.10%	469.06%	대신자산
KODEX 에너지화학	66.80%	116.73%	삼성자산
KINDEX 펀더멘털대형	50.00%	2.88%	한국투신
TIGER 현대차그룹+	49.60%	16.86%	미래맵스
Kstar 5대그룹주	48.30%	131.53%	KB자산
KODEX 자동차	47.00%	237.25%	삼성자산
TIGER 자동차&유통	42.90%	11.39%	미래맵스
KODEX 보험	42.00%	8.85%	삼성자산
KODEX 레버리지	41.70%	57.75%	삼성자산
KINDEX 삼성그룹SW	41.00%	99.90%	한국투신
KODEX 철강	40.50%	68.87%	삼성자산
TREX 200	38.80%	95.77%	유리자산
TIGER 레버리지	33.40%	41.94%	미래맵스
KStar 레버리지	33.30%	41.86%	KB자산
KODEX 200	29.70%	260.00%	삼성자산
KOSEF 200	29.70%	259.61%	우리자산
KStar 코스닥 엘리트30	26.70%	65.99%	KB자산
KODEX 골드선물(H)	23.80%	18.51%	삼성자산
PREX 네오밸류	23.10%	24.66%	푸르덴셜
KODEX 소비재	22.60%	13.41%	삼성자산

자료:한국거래소



"ELW 전용회선 제공은 불공정률 HTS사용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주식워런트증권〉

증시 비하인드 인터뷰

ELW 스캘퍼 1세대 L씨

증권사 CEO 12명이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ELW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5년 12월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 개설 당시부터 매매를 시작한 ELW 스캘퍼 1세대 L씨(45세)가 인터뷰에 응했다.



호가 밀어내기·벌리기 등 특정인만 유리
시장 발전위해 LP제도 공정하게 고쳐야

보통 4~5명의 팀으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A씨는 개장 당시부터 단독으로 매매에 나서고 있다. 그는 논란의 핵심인 DMA(전용회선)에 대해서는 "최근 ELW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존재를 알게 됐다"며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자가 DMA를 사용한 투자자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ELW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LP(유동성공급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ELW 스캘퍼 1세대다. 전업투자 업력을 얼마나 되나.

▲1998년부터 전업투자자로 나섰다. 2005년 개장 당시부터 ELW 스캘퍼로 활동했다. 최근엔 ELW로 수익 내기가 힘들어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ELW 스캘핑은 주로 팀 단위로 활동한다고 들었다.

▲ELW가 기초자산에 잘 알아야 하는 만큼 팀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투자하면 수익 내는 것은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가 편하다.

-전용회선(DMA)이 논란이다.

▲ELW 투자를 꽤 오래했지만 최근 ELW 사태가 터지고 존재를 알았다. 거래량이 많은 일부 스캘퍼에게 증권사에서 제공한다고 들었다. 일반 HTS를 통해 거래한다. DMA를 사용하면 HTS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분 나쁘다. 출발 자체가 다른 불공정한 게임 룰이다.

-예전에 비해 ELW로 수익 내기가 힘들다고 들었다. 이유가 뭔가.

▲ELW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LP들이 유동성 공급에 소홀하다. 호가 제시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ELW 거래가 원천적으로 LP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LP들이 기초자산보다 높게 호가를 제시해 매수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호가 제시도 안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 왜곡도 많다고 들었다.

▲LP가 기초자산 가격 움직임과 반대로 호가를 내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싼 가격에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LP들은 싸게 나온 ELW를 거둬들이고 정상적인 호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

-밀어내기와 벌리기가 뭔가.

▲밀어내기는 LP가 호가를 이론대로 내지 않고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만 내는 것이다. 벌리기는 매수와 매도 호가를 벌려 거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둘 다 LP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다.

-ELW 시장 참여자로써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게 뭔가.

▲ELW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LP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LP들이 호가를 취소하거나 유리한 쪽으로만 호가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다이제스트

대신證 복복복 복뎅이 이벤트

대신증권이 복(伏)날을 맞아 '복복복 복뎅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신증권 공식블로그인 'Trust & Harmony'를 알려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중복(中伏)이벤트 당첨자 25명에게는 수박 2통을, 말복(末伏)이벤트 당첨자 25명에게는 치킨 2마리를 제공한다. 응모기간은 중복이벤트가 14일부터 20일까지, 말복이벤트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 공식블로그(blog.daishin.com)를 방문해 이웃을 맺은 후, URL과 오픈축하 댓글을 대신증권 공식블로그 포스트에 남기면 된다.

투교협, 금융캠프 모집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다음달 8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 아산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제5회 초등학생 증권·금융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권·금융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참가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를 통하여 선착순 접수한다.

No.1에게 듣는다 안성재 삼성證 포트폴리오 운용팀장

"고객 투자목적에 맞게 수익률 내야"

"시장 대비 수익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들이 투자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증권 안성재 포트폴리오운용팀장(사진)은 삼성증권이 랩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랩 서비스의 본래 가치를 충실히 지키면 된다는 것.

안 팀장은 "랩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들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라며 "단순히 높은 수익률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생각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안 팀장은 강조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월 100회가 넘는 설명회를 통해 삼성증권의 랩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안 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개최하는 투자 설명회 뿐만 아니라 백화점, 군부대 등 고객들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대면통해 니즈파악
필요 서비스제공에 최선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며 "고객들을 직접 만나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고객과의 직접 대면에 나서는 프라이빗뱅커(PB)의 역량 강화이다. 안 팀장은 "고객들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PB들"이라며 "이에 전 PB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와의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PB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형 랩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증권인 만큼 자문사 관리에도 특출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의 파트너 자문사는 32개사로 삼성증권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사도 있다.

안 팀장은 "랩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인지한 만큼 다른 증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문사를 다수 보유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올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안 팀장은 "최근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수익을 그때마다 세이브해 고객들의 수익률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KCC 블록딜 긍정적 반응…소폭하락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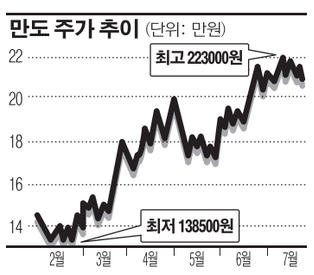
종목 레이더 만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만도가 KCC의 대량 블록딜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14일 만도는 장 중 20만65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전일대비 5000원(2.27%) 내린 21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KCC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만도의 주식 310만7062주를 6369억4771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JP모간이 주관을 맡았고, 주당 매각가격은 13일 종가 22만원에 5~8.9% 할인율을 적용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상장한 만도 공모가 8만3000원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가격이다. 시장에서 이번 블록딜로 오버행이슈가 해소돼 주가에 긍정적



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만도는 지난해 8월20일 KDB와 H&Q가 소유하고 있던 338만주(지분율 18.6%)에 이어 KCC의 보유물량이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되면서 지난 2008년 만도 인수에 참여했던 주요 재무적 투자가들의 지분이 모두 처분됐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팍스넷 아이디 '스밀로돈'은 "이번 블록딜은 장에서 직접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에 거래되는 물량이니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묶여있던 물량이 풀리는 만큼 물량부담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디 '신규편입'은 "블록딜 물량을 보호예수로 제한했다면 몰라도 상당수 물량이 단타로 나오면 심각하다"며 "블록딜 받은 기관, 외인들이 다소 기다린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들은 겁먹고 차익실현 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투자자는 또 "아무리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도 수급이 꼬이는 상황이면 당분간 곤란할 것"이라며 "재매수는 블록딜 가격이하 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희나 hnoh@

회사는 언젠가 당신을 버린다!
직장인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24가지



자기계발분야 최고의 멘토 조관일 박사가 전하는 버킷 리스트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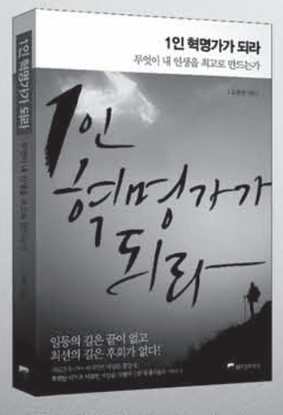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지금 당신이 목매며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언젠가 당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언젠가 회사를 떠나게 될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 말이다. 자기계발분야 최고의 멘토 조관일 박사가 신간 『직장을 떠날 때 후회하는 24가지』를 통해 직장인이라면 회사 다니는 동안 꼭 해야 할 24가지를 들려준다. 책을 다 읽는 순간 당신은 언제 어느 때 사표를 던져도 끄떡없을 내공을 갖게 될 것이다.

직장을 떠날때 후회하는 24가지
조관일 지음 | 13,000원

위즈덤하우스

"이런 직원이라면 연봉 10억도 아깝지 않다!"

평범했던 직원이 개인과 조직의 200%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3가지 비결



1인 혁명가가 되라
조관일 지음 | 12,000원 | 위즈덤하우스


쌍용건설이 서울 평창동에 분양중인 고급주택 오보에힐스.


한화건설이 공급한 고급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고급주택 '풍수마케팅' 다시 열풍

산운 아펠바움·갤러리아포레 등
풍수전문가 내세워 '명당' 홍보나서

금반형(金盤形)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완사명월형(浣絲明月形)

풍수지리학에서 '명당'으로 일컫는 한자어들이다. 이 곳에 살면 무병장수하고 재물이 모이며, 후손들이 잘되어 존경받는 인재가 배출된다는 것을 뜻한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 공급되는 초고가 주택들은 풍수지리적 용어를 내세우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택의 조망, 입지조건 등의 장점을 내세워 집을 판매하는 기존의 마케팅 방식에서 집터의 인문지리학적 장점을 부각시켜 승부를 거는 이른바 '명당 마케팅'을 도입하는 건설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운중동 일대에 분양중인 80억짜리 고급 단독주택 '산운 아펠바움'과 고급빌라 '운중 아펠바움'이 바로 풍수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산운 아펠바움'과 '운중 아펠바움'의 경우 대동풍수지리학회 학회장인 고제희 씨와 풍수전문가 강희종 순천향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풍수보고를 적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판교는 금쟁반에 옥구슬이 굴러다니는 명당으로 귀인이 찾아와 부귀영화를 누릴 복지(福地)다. 산운 아펠바움이 위치한 운중동 일대는 '선인독서형'의 명당으로 큰 인재와 부자가 끊임 없이 배출되는 명당이다.

SK D&D의 고명덕 소장은 "VVIP고객들은 가족이 살 주택을 결정할 때 지관을 직접 동원해 분양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이 사업을 하는 CEO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과 가족의 번영을 위해 풍수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서울 성동구에 분양한 주상복합 '갤러리아 포레'도 풍수마케팅을 펼친 곳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한국풍수지리원 전향수 원장의 컨설팅을 받아 용과 말이 만나서 물을 마시는 형국의 지형을 나타낸다는 '용마음수(龍馬飮水)'라는 명당을 내세워 마케팅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쌍용건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분양중인 30억원 대의 고급주택 '오보에힐스'는 금닭이 알을 품고 있고 후손의 영광을 위해 부화를 기다린다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분양 중인 '운중 푸르지오하임'도 풍수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령대가 높은 수요자를 주요 타켓으로 하는 이 단지는 배산임수의 '양택명당' 지역을 강조하며 분양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초고가 고급주택에 풍수지리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은 부자일수록 풍수를 따져가며 주거지나 사업장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고제희 대동풍수지리학회장은 "부자들일수록 고민이 많아 풍수지리에 대해 깊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며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택입지는 물론 묏자리, 사옥과 사업장터, 집무실의 물건 위치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si@

"꿈나무들의 희망을 찾아줍니다"

GS건설의 '특별한' 사회공헌

GS건설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꿈과 희망의 놀이터 1호점'과 '즐거운 방과후 교실 1호점' 을 개설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이 안정된 학업과 놀이가 가능하도록 교육 과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꿈과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
'꿈과 희망 찾기' 프로젝트 결실
놀이터·방과후 교실 1호점 개설

GS건설은 이와 함께 '꿈과 희망의 놀이터'를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연간 저소득층 가정 40가구, 지역복지시설 4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즐거운 방과후 교실'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상·하반기 지역복지시설 한 군데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은 어린이 재단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GS건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년 40명의 청소년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GS건설이 가정을 방문해 공부방을 직접 꾸며준다.

공부방이 조성되면 GS건설 직원들이 개인별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꿈과 희망의 놀이터' 조성 사업은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보육시설 등 수혜받을 기관을 선정한 뒤 맞춤형 놀이기구와 생태학습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GS건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텃밭가꾸기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생태학습을 지원한다.

'즐거운 방과후 교실'은 노후화된 복지시설 내 교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교실 환경 개선작업에는 GS건설 봉사단원들이 직접 참여한다. 올해 지원하는 놀이터 4개소, 방과후 교실 2개소의 환경 개선작업을 통해 연간 약 500여명의 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허명수 GS건설 사장(윗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꿈과 희망의 놀이터 1호점'과 '즐거운 방과후 교실 1호점' 완공식에 참석해 수혜 아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방과 후에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교육 뿐 아니라 놀이에서도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GS건설은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안정된 학습 및 놀이 환경을 제공해 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hsi@

포스코건설, 말레이시아 건설시장 진출
재계 6위 기업과 MOU



포스코건설은 13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재계 순위 6위 버자야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탄스리 빈센트 탄(Tan Sri Vincent Tan) 버자야 회장, 다토프란시스 응수이린(Dato Francis Ng Sooi Lin) 버자야랜드 사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포스코건설은 버자야가 진행하는 투자사업에 시공사 혹은 시행사로 참여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에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버자야는 한국과 베트남, 중남미 등에서 도시개발사업과 플랜트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포스코건설의 노하우를 활용해 신규 사업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상혁 기자 daniel@

SH, 마천지구 잔여물량 65가구 분양
전 가구 전용면적 114㎡

SH공사는 서울시 마천지구 분양아파트 잔여물량 65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가구는 2010년 2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으로 모두 전용면적 114㎡로 구성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이며,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매 가능하다.

가구당 분양가격은 5억2642만1000원에서 5억9530만2000원, 발코니 확장금액은 90만2000원에서 97만9000원이다. 분양대금은 계약 때 20%를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80%를 내면 되고 잔금납부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12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거주지역,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오전 11시30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희망 동·호수를 지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상혁 기자 daniel@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뚝'
지난달 4만여건…가격도 약세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의 실거래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4만6885건으로 전달(4만8077건)과 비교해 2.5%(1192건)가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5만9142건)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계절적 비수기 인데다 투자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들도 매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5년 평균치(4만469건)보다는 16.1% 높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 6월 거래 감소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때 거래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4489건, 지방 3만2396건을 각각 나타냈다. 이는 전월비로 각각 -3.9%, -1.8% 줄어든 것이다. 서울도 3만724건을 기록해 전월대비 2.1%, 5년 평균대비 27.4%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7㎡(9층 기준)이 8억9900만원에서 8억7500만원으로 하락했다. 4월 9억2500만원에 팔렸던 12층 물건도 지난달에는 9억원에 거래됐다.

대표적인 저층 재건축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51㎡도 가격이 한달새 최대 9000만원 떨어졌다. 전달 9억4000만원까지 거래됐던 3층 아파트가 8억5000만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김성배 기자 sbkim@

도시형 생활주택


양재동 주택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저널 4월호 게재 예정


도곡동 주택가 원룸형 다세대주택


이문동 주차장완화구역 준주택


대치동 학원가 도시형생활주택 (복합형)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특별지원
국토해양부 2011년 2월 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지원대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전용면적 12m²(3평)~50m²(15평) 기준

지원한도
원룸형 m²당 80만원 최대 2,400만원
단지형 다세대, 연립형(분양) : 가구당 5천만
단지형 다세대, 연립형(임대) : 가구당 5천만

상환기간
원룸형 3년거치 17년상환
단지형 다세대, 연립형(분양) : 3년만기 일시상환
단지형 다세대, 연립형(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금리 특별지원
금년말까지 연2% 우대금리 적용

상담처 우리은행 삼성역 지점 02) 558-5191
또는 해당지역 기금 취급지점

야촌주택건설(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최고의 전문가 그룹
건축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괄도급방식
임대주택관리, 분양마케팅 등 투자자문
종합건설, 주택건설사업 면허보유
건축상담 02) 577-9300
www.yachon.com

- 도시형생활주택 + 주인세대1세대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4월초 시행)
- 주택임대사업 세제완화 (서울,수도권 : 5채이상 10년보유 조건 〉 3채이상 5년보유)
-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규모 확대
- 서울시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대지안의 공지 3m 〉 2m로 완화 시행



1. 아이엠피 '핸디맨
2. 달팽이 응급처치 슈즈 '휴대용 플랫 슈즈'
3. 대화기전 '푸그니'
4. 디벨로디자인 '가오리연 벽시계'
5. 바이오메틱스 '아토큐30 천연화장품'
6. 디엘아이코리아 '사운드포디
7. 아이엔티 '덴티올'
8. 휴벤 '티위드'
9. 천우 '뉴-클린'
10. 지혀플랜 '펜 패드'
11. 태흥F&G '못비료 秀'
12. 아빅스 'UID200 키보드'

튀는 아이디어, 탄탄한 기술력… "히트 예감"

유망 중기 제품 HIT 500 ⑬

본지·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기획

이투데이는 우수한 품질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비자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들의 히트500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역소재 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의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후원기업과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우리생활에 밀접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려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정한 글로벌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휴대용 신개념 칫솔

1 아이엠피 '핸디맨'

아이엠피 '핸디맨'은 칫솔에 치약을 충전시켜 언제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휴대용 칫솔이다. 이 제품은 치약과 칫솔을 따로 휴대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보완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핸디맨은 내부에 치약을 손쉽게 충전해 제품에 부착된 게이지를 통해 치약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교체 가능한 더블슬립 항균 칫솔모는 치아의 구석까지 침투해 깨끗하게 닦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칫솔 캡에 이탈방지용 잠금장치를 채택했다. 디자인 및 실용신안등록 특허 상표 등록이 된 제품이다.

구입문의 : 02-534-2411

돌돌말아 가방에 쏙

2 달팽이 응급처치 '플랫슈즈'

달팽이 응급처치 슈즈 '휴대용 플랫 슈즈'는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아이디어 상업화를 받은 제품으로 여성을 위한 슈즈다. 하이힐을 신다 발이 아프면 평소에 가방에 돌돌 말아 보관했다가 바로 꺼내서 갈아신을 수 있는 휴대용 응급처치 슈즈다. 세트로는 하이힐 주머니, 휴대용 슈즈, 파우치로 구성돼 있다. 신발 원단은 가죽 재질이며 원단 두께는 호피(0.6mm) 뱀피(1.2mm) 흑색(1.0mm)이다. 이 제품은 급브레이크 상황과 주차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드라이빙 슈즈로도 활용되고 있다. 2008년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다.

구입문의 : 032-212-2340

전자파 걱정없는 난방기

3 대화기전 '푸그니'

대화기전 '푸그니'는 기존의 보조난방용 기구의 단점을 보완한 온수매트다. 기존 전기매트는 전기장 전자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온도 조절기에 '전자파 차단스위치'가 있지만 100%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푸그니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발열도구로 온수를 사용, 전자파 걱정을 없앴다. 호스가 눌리거나 꺾여도 펌프 재순환기능을 갖춘 '안티 데드락 시스템'(Anti Deadlock System)이 보일러의 고장과 파손을 막아준다. 또 5중 안전센서를 장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황토를 환으로 만들어 매트에 넣어 항균작용, 원적외선 방사를 극대화시켰다.

구입문의: 070-7609-9155

가오리연 디자인 이색

4 디벨로디자인 '벽시계'

디벨로디자인 '가오리연 벽시계'는 가오리연에서 착안된 제품으로 정사각형을 45도 회전시키면 가오리연과 같은 마름모 형상이 되는 현상을 응용한 벽시계다. 마름모 네 꼭지점 장식 볼트가 시계의 수직, 수평 기준이 되는 12,3,6,9의 숫자 역할을 하며 시계의 6자 위치에는 가오리연의 꼬리가 바람에 흩날리며 순간적으로 6자 모양을 연상시킨다. 사출물이 아닌 아크릴 후판을 사용함으로써 중후한 느낌이 들도록 했으며 특히 광택 검정색 아크릴을 사용해 최근 디자털 제품에서 많이 채용하는 고광택 검정색과의 조화를 꾀했다.

구입문의 : 02-512-4085

항균·항염·황산화 작용

5 바이오메틱스 '천연화장품'

바이오메틱스 '아토큐30 천연화장품'은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비누 등으로 구성된 피부질환 치료 및 개선제다. 이는 수목추출물 특허등록이 된 제품으로 항균 항염 항산화 해독작용 피부재생능력이 우수한 프로폴리스용 수목추출물이 다량 함유돼 있다. 초음파처리로 피부 속 진피까지 침투,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최적상태로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2차 감염을 막아준다. 독성이 없는 100% 천연 소재로 구성돼 미네랄과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다. 사용기간은 일반아토피의 경우 30일 이내, 특이 체질(알레르기)은 장기간(약 100일)이다.

구입문의: 055-333-7530

의자거치 쿠션형 스피커

6 디엘아이 '사운드 포디'

디엘아이코리아 '사운드포디'는 현장감 있는 영화, 음악 감상을 위한 스피커다. 사운드포디는 의자에 거치해 사용하는 쿠션형태의 스피커로 진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사운드포디를 통해 CGV 등의 멀티영화관 4D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기능을 집에서도 구현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영화감상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실감나고 현장감 넘치는 느낌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을 할 때, 음악을 감상할 때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비트 및 진동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ound4d.com) 또는 전화(070-8785-5301)로 문의하면 된다.

초음파 진동 양치 도우미

7 아이엔티 '덴티올'

아이엔티 '덴티올'은 일반 칫솔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음파 진동 양치 도우미다. 덴티올은 칫솔을 꽂기만 하면 1분당 4만5000회의 3D입체 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양치질만으로도 스켈링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강력한 물 흐름으로 강한 충격량을 지닌 공기방울이 생성돼 치간 및 어금니까지 세정능력을 발휘한다. 또 음파진동식 제품이라 칫솔모가 전후, 좌우로 진동하기 때문에 잇몸의 플라그나 치아 표면의 찌거기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히트상품으로 QVC 방송에 소개된 이 제품은 건전지(AA) 1개로 2개월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구입문의 : 02-2688-2964

도자기와 전자부품 결합

8 휴벤 '티위드'

휴벤의 '티위드'는 전통적인 소재인 도자기와 현대적 소재 전자부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다. 컵의 바닥에 히터를 매립해 컵의 온도를 마시기에 적당한 55도 이상을 유지해 준다. 티워드는 특히 도자기를 가열하면서 나오는 원적외선의 효과로 커피와 차의 맛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는 게 특징이다. 12V를 사용해 전기안정성을 높였으며 컵은 방수처리를 해 세척시에도 안전하다. 향후 주전자, 아로마 훈향기, 가습겸용 화분, 국그릇, 접시 등 다양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huben.co.kr) 또는 전화(070-8286-898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살균기 내장 세균걱정 뚝

9 천우 '뉴-클린'

천우 '뉴-클린'은 진공펌프원리를 응용해 만든 치약 토출 상품이다. 전기나 전자 부품의 사용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만을 토출해 준다. 조절기능을 갖춰 치약의 양 조절이 가능하다. 치약 토출입구를 넓게 만들어서 주변에 묻는 지저분함을 없앴다. 뉴-클린의 또 다른 매력은 자외선 살균과 소독기능이다. 살균기가 내장된 뉴-클린에 자외선 램프의 전원공급부를 설치하면 된다. 자외선램프의 설치로 세균 오염을 막아주고 치약이 통과하는 주요부분을 살균처리해 준다. 칫솔을 놀러 터치해주면 5분간 살균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

구입문의 : 032-864-9988

책상위 펜 정리 손쉽게

10 지혀플랜 '펜 패드'

지혀플랜 '펜 패드'는 사무공간이나 실외에서 펜을 사용할 때 하나만을 꽂아서 사용하는 거치대다.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는 필기구들. 연필꽂이에 꽂아도 자주 사용하는 펜을 찾을 때 찾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다. 펜 패드는 자주 사용하는 펜만을 꽂을 수 있다. 5초 이상 펜을 꽂아 놓았다가 빼내면 펜 패드 아랫부분에서 향기가 난다. 장시간 펜을 거치해 놓으면 향기는 더 짙어진다. 마찰력이 뛰어나 일반 책상 위나 유리 판 위에서도 거치가 쉽다. 자석이 장착돼 있어 쇠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면 측면이나 천장부분에 부착하기 쉽다.

구입문의 : 033-575-3745

국립산림과학원 공인

11 태흥F&G '못비료 秀'

태흥F&G '못비료 秀'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공인한 가로수 전용 못비료다.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조경 학교조경 가정정원 과수원 산지 등 모든 수목관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땅을 파고 비료를 주기 어려운 곳에 누구나 손쉽게 시비할 수 있는 '수목전용 땅에 박는 비료'다. 이 제품은 시비시간과 인건비가 절약된다는 게 특징. 또 수목에 알맞게 서서히 녹아 오래 간다. 비료의 토양 유실이 적어 수목의 영양흡수율리 높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줄여준다. 황산가리를 함유하고 있어 수목의 푸르름이 오래 지속되고 꽃이 진하다. 열매의 당도도 높다.

구입문의 : 02-2611-0810

HW 점퍼 방식 키보드

12 아빅스 'UID200 키보드'

아빅스 'UID200 키보드'는 사용자가 직접 특정 키를 케이블로 신호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점퍼 방식의 키분리형 키보드다. 키보드 뒷면에 있는 핀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모든 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미디어 게임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본 2개 키가 제공되고 표준 3.5㎜ 스테레오 오디오 컨넥터를 통해 8개 키를 입력할 수 있다. 확장 젠더를 통해 140개까지 입력 가능하다.

구입문의: 031-459-6572

로봇수술의 虛와實

〈상〉 수술 권하는 병원

탤런트 박주아 씨가 로봇수술(다빈치 로봇)을 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로봇수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국내에 본격 도입된 로봇수술은 현재 27개 병원에서 33대 기기를 이용해 각종 암 수술 등에 이용되고 있다. 로봇수술은 아직 안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검증된 바 없다. 하지만 병원들은 대외 이미지와 영리를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적극 권하고 있는 실태를 알아 본다.

"부작용·합병증 적다" 과대홍보

2005년 이후 1만여건…전립샘암 60%로 최다
병원선 안전·실효성 검증 안됐는데 적극권해
일부의사 "가격 2~6배 비싸고 효과도 의문"

광주에 사는 차모씨(남.55)는 지난 3월 초 췌장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급하게 찾았다. 이 병원 주치의는 수술 부작용도 적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술기간을 포함해 개복수술 보다 퇴원이 빠르다며 로봇수술을 권했다.

차모씨는 "'일반수술을 하려면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로봇수술은 다음 주에 바로 입원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해 수술비 부담이 컸지만 자식 입장에선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선택(로봇수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로봇수술은 지난 2005년 식약청이 시술을 승인한 이후 작년 10월말 현재 1만3700건의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비뇨기관,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전립샘암의 경우 개복 수술 및 복강경 수술에 비해 입원기간이 짧고, 출혈량이 적어 인기가 높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립샘암의 경우 약 60%가 로봇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갑상샘 절제, 신장절제 등에도 로봇수술이 시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장암과 위암수술 등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문제는 로봇수술 후 장기생존율, 재발률, 부작용 등과 같은 수술 결과에 대해 기존 개복수술과 비교해 효과가 높다고 할 만한 임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로봇수술법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안전성과 실효성에 있어 높은 가격 대비 치료 효과가 높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은 "로봇수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고가이며 비급여 이기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의 근거에 입각해 분석했을 때 가격대비 치료 효과가 크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로봇수술은 기존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고 건강보험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만~1200만원 선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수술법과 비교해 약 2~6배 고가이다. 물론 로봇수술이 기존 복강경 수술의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로봇수술은 3차원의 양안렌즈를 사용해 입체감을 높였고,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술자의 손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수술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병원들이 개복수술은 합병증이 많고, 로봇수술이 최고의 수술인 것처럼 과대홍보를 하면서 로봇수술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로봇수술을 시술하는 의사들 조차 이러한 행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의대 김형호 교수(외과)는 "로봇수술을 5번 정도하다가 환자가 6배 이상의 돈을 낼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이제는 이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필현 기자 chop23@

태풍 '망온' 북상…19일 상륙

내주에도 장맛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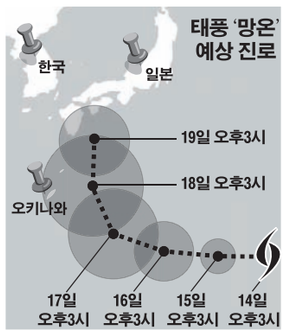
제6호 태풍 '망온(MA-ON)'이 일본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5일 03시 기준으로 이 태풍이 괌 북쪽 약 780km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온은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41m/s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계속 북상하면서 대형급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 태풍은 오는 19일 일본 규슈 부근으로 북상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20일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동해안 지방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풍류가 유입돼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회철 기상청 통보관은 "이번 태풍이 일본으로 지나간다 해도 범위가 넓어 우리나라에도 비와 강풍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장마전선이 다시 형성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기상 예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오전 현재 중북부지방에 걸쳐 비를 내리고 있는 장마전선은 오는 16일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비는 서울·경기도, 강원도영서, 서해5도에 시간당 20~60mm, 많은 곳은 경기북부, 강원도영서북부 등에 80mm 이상의 강수량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남부지방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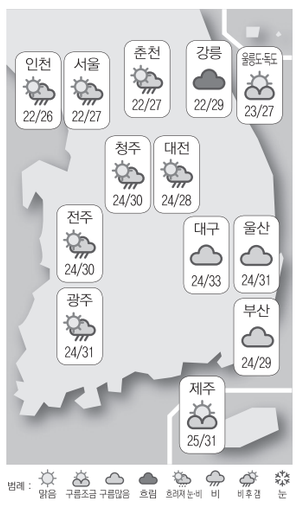
박태진 기자 tjpippo@

내일의 날씨 (최저/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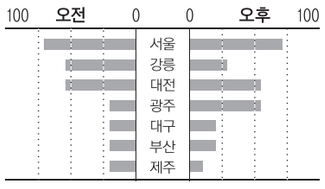
☼ 해뜸 05:23 해짐 19:53 ☽ 달뜸 20:21 달짐 06:11

중부 비

중부지방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눈·비 올 확률



※ 자료 : 기상청



야! 방학이다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가 다음주 부터 방학에 들어간다. 14일 오전 서울 문래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치고 즐거워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건설현장 근로자 고령화 급속진행

작년말 40대 이상 77.4%…비용감축·외국인 유입 영향

건설현장 근로자의 40대 이상 비중이 지난 10년간 18% 이상 증가하는 등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77.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비중인 59.0% 보다 18.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건설 기능인력이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엔지니어 등 전문 기술자나 사무인력은 여기서 제외된다.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2000년 47.5%에서 2010년 59.0%로 11.5%포인트 늘어나는 그쳤다. 그러나,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 비율은 같은기간 18.6% 포인트(2000년 58.8%→2010년 77.4%) 증가했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제 실시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기능인력이 점점 고령화하는 추세"라며 "공사비를 줄이느라 40대 전후의 숙련공을 퇴출시키고 젊은 인력은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어 내국인 근로자의 맥이 끊긴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심 연구위원은 "기능인력이 숙련되는 데 5년 정도가 소요되고 건축물의 품질이 기능인력의 숙련도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인력 고령화 현상은 건설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건설업 분야의 전체 취업자 수는 올해 5월 현재 178만70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1.5%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투자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건산연은 추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매일유업·남양유업 또 담합

컵커피 값…128억원 과징금 부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두 업체가 반복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간 모두 4건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13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도 같은 기간 3건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부과받은 과징금은 145억2800만원에 달한다.

매일유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우유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나 3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두유 가격으로 17억원, 6월 치즈가격으로 34억6400만원, 이번에 컵커피 가격으로 5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매일유업은 2009년 2월에 분유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0년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독점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2월 우유 가격 담합으로 48억4000만원, 올해 6월 치즈가격으로 22억5100만원, 이번에 컵커피로 74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2010년 6월 과장광고 및 타사제품 비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고, 그해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조제분유 독점 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말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데다가 이들 업체의 제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진영 기자 mint@

관리용장부와 회계장부를
매일! 한번에! 동시에!

"회계,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보시죠"
회계 아웃소싱, 연매출 100억 이상의 회사만 하는줄 알았는데 30억대의 우리 회사도 된답니다.

이런건 안합니다!
■ 비싼 ERP사서 교육훈련에 서버관리까지
– 제대로 사용하고는 있는지 ……
– 입력된 Data는 맞는지 ……
– 유지·보수비용은 적정한지 ……
■ 회계·세무경력사원 고임금에 봅아서
– 잘 가르쳐 놓으면 그만두고 또 가르치고 ……
– 전문성 검증은 ……
– 업무 연속성은 ……
■ 영수증·문서를 회사 밖으로 보내놓고
– 회계장부를 손꼽아 기다리고 ……
– 1년에 한번 장부 받고 ……
■ 결국 일은 우리가 다 해 놓고
– 신고하자고 또 맡기고 ……
– 시간 쓰고 돈쓰고 ……

"회계전문가가 인터넷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음날이면 실적이 확인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 매티가 제공하는 ERP로 현장에서 기본문서를 작성하기만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 입금보고서 작성
–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명세표 작성
– 수주보고서 – 급여대장
– 구매발주서 – 구매입고보고서
– 생산보고서 – 자재불출보고서 등
■ 일일 실적을 매일 확인합니다.
– 익일 아침이면 4대일보가 보고되며 핸드폰으로 알람을 드립니다.
·자금일보 ·판매일보 ·구매일보 ·생산일보 ·SMS문자 알람
■ 관리용 장부가 매일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 이젠 만드느라 애쓰지 말고 언제든지 불러내서 활용하기만 하세요.
·현금출납부 ·외상관리대장 ·어음관리대장 ·수불부 ·수주관리대장 등
■ 회계장부와 관련신고는 전문가가 알아서 매일 처리 합니다.
– 관련법규 검토와 업무지식은 전문가들이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치세요 회계 아웃소싱
http://www.matikorea.co.kr MATI Korea Co.,Ltd./ Since 1998
여기 회계아웃소싱 전문기업 '매티'가 있습니다.
Mati Management Accounting & Tax information
국내 최초의 검증된 회계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 매티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8-4 호정프리자 6F
TEL : 02) 6293-0514
FAX : 02) 6293-0519

"노사문제 정치권 개입 말라"

이희범 경총 회장 "정부는 반기업적 정책 신중 검토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사진〉이 "정부는 반기업적인 정책 추진은 신중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복수노조 시행 이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운영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시기적, 단계적으로 적절치 않은 법안이 139건이나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노사문제의 정치쟁점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개별사업장에서 정치권이 개입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일부 정치권이 정치쟁점화시키는 모습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복수노조제도, 타임오프제도 등 현안이 산적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회원사에서 노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안정 기조라고 생각한다"며 "타임오프제도도 어려운 가운데 98% 작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7월 시작된 복수노조제도 아직까지 우려는 있으나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복수노조 시행의 성공은 이제부터의 운영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한 사업장에 17개의 노조가 난입했지만 서로 협력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사례도 있다"며 "복수노조 성공 여부는 향후 운영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총과 회원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문제는)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들이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건 환영하지만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또 "복수노조 시행초기에 설립건수가 집중됐지만 향후 1~2



달 정도 지나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우려는 했지만 최근 반대단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진행하는 등 정상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KIC 차기 사장 최종석씨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투자공사(KIC) 차기 사장에 최종석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자문위원〈사진〉을 내정했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최 내정자는 경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컬롬비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있는 그는 하나알리안츠 투신운용 공동대표, 하나은행 유한공사 은행장, 하나은행 부행장,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회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 교우회장 이양섭씨



제30대 고려대 교우회장에 이양섭(74·상학 57학번·사진) 명신산업 회장이 공식 선출됐다.

고려대 교우회는 14일 오후 서울 안암동 교우회관에서 대의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정기총회를 열어 이 회장을 신임 교우회장으로 인준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기수(66·법학 65학번) 양형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뽑혔다. 고려대 교우회는 이로써 지난해 12월 천신일(68·정치외교 61학번) 세중나모 회장이 검찰 수사로 교우회장을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새 회장을 뽑았다.



'한국 관광의 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크게 이바지한 '피겨여왕' 김연아와 강원도 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소지섭이 한국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사진은 14일 열린 시상식에서 소지섭(왼쪽)과 김연아 선수(오른쪽)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고

'평창의 성공' 그리고 기업가



박 환 우

성호전자 대표

지난 7월6일 자정을 넘긴 한밤중에 남아공에서 전해온 소식은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마침 7월7일 오전에 참석했던 벤처기업 1000억원 달성을 기념하는 벤처기업협회 주관의 '2011 벤처 천억기업 시상식'에서도 참석자 모두는 온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화제였다.

그곳에서 내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참석자 몇 명은 벤처기업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국내 매출기준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마침내 선진국의 점유물이 되다시피 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쾌거와 비교하는 대화가 오가게 되었다.

불굴의 도전정신 배워야

그렇다! 우리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해를 딛고 선진국의 징표가 되는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국제적인 스포츠 개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이 우리 기업인들이 불굴의 투지로 세계적인 강소기업 또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흡사하고 이러한 업적을 이루어 내는 이유에는 동일한 코드가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첫째, 우리의 불굴의 도전정신이다.

비록 처음 시작은 무모해 보이고 당돌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지 않는가?

무모하게 보여도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또 끈질긴 집념으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남다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둘째, 역시 기업의 전략이나 국제대회 유치전에서 고객 마인드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독일의 '뮌헨'이나 프랑스의 '안시'보다 훨씬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 '평창'을 선택한 것은 투표인단 IOC 위원들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고객 마인드로 접근한 우리 유치단의 성공 전략이었다.

기업 성장전략 역시 수시로 바뀌는 환경과 고객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그 방향으로 바뀌는 고객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보다 고객의 마음을 붙잡는 고객마음점유율(Mind Share)이 중요해지는 감성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들과 다른 차별화이다.

우리나라 '평창'은 자연조건이나 시설 등 인프라 그리고 접근성이나 시청자 선호 시간대에서도 '뮌헨'이나 '안시'에 당연히 뒤진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변방에도 동계스포츠 확산"이라는 전략적 명분을 걸고 나왔다.

남들과 다른, 부족한 조건을 다른 방법으로 포장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차별화의 전략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은 유연성, 창의성, 속도전으로 글로벌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워 강소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차별화 전략은 앞서 말한 고객 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내용은 감성적 접근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 모든 일은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감성마케팅으로 고객 감동을

이러한 면에서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인, 즉 최고경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기업을 창업하고 키워가는 경영자는 항상 실패에 대한 공포증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아야 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보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과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화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3만, 4만 달러가 되는 선진국의 미래를 꿈꾸어 본다.

인사

◆지식경제부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녹색성장기획단 에너지정책팀장 정동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국장 원동진 ◇부이사관 △입지총괄과장 박형건 △부품소재총괄과장 이승우 △투자정책과장 김선민 △석유산업과장 조영신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팀장 전성무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손준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유동주 〈이동〉 ◇과장급 △재난안전관리팀장 조주영

◆국토해양부 〈전보〉 ◇국장급 △항공정책관 박명식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 안시권 △서울지방항공청장 구본환 △자동차기획단장 구자명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 건

◆국민권익위원회 〈전보〉 ◇과장급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김재수 △국방보훈민원과장 제갈창무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강낙호

◆국가보훈처 〈전보〉 ◇국장급(일반직고위공무원) △보훈선양국장 유주봉 △복지증진국장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 민병원 ◇과장급(부이사관) △제대군인정책과장 전종호 △인천보훈지청장 이남일 ◇과장급(서기관) △대변인 신명철 △기획재정담당관 윤건용 △보상정책과장 홍인표 △단체협력과장 장정교 △기념사업과장 장재욱 △국립묘지정책과장 임성현 △복지운영과장 김영준 △의정부보훈지청장 이강연 △진주보훈지청장 윤홍철 △충주보훈지청장 허부성 △순천보훈지청장 김한희 △목포보훈지청장 이명재 △전주보훈지청장 김명한 △국립영천호국원장 이재익

◆도로교통공단 △경영평가처장 이건호 △교통과학정책실장 김만배

◆수출입은행 〈승진〉 ◇부행장 △수출금융본부 설영환 △신성장금융본부 박일동 △경협사업본부변상완 ◇부서장급 △금융자문실장 양환준 △기술심의실장 강순기 △경협지원실장이기호 △울산지점장 오은상 △국별조사실 부장 김주영 △인사부소속 부장 임상현(연수) △인사부소속 부장 전원영(연수) △인사부소속 부장 박명하(연수) 〈전보〉 ◇부서장 △총괄사업부장 홍영표 △국제협력실장 윤석만 △기획부장 장만익 △법무실장 이내형 △자원금융부장 이광인 △전대금융실장 서우택 △무역금융부장 안상술 △중소기업금융부장 강준수 △히든챔피언사업실장 이기철 △해외진출컨설팅센터장 노형종 수출중소기업상담센터장 임명성 △국제금융부장 최성환 △경협기획실장 장영훈 △남북협력기획실장 이영모 △산업투자조사실장 이해청 △인사부장 차광수 △인재개발원장 석팀장 이승건 △금융자문실 금융자문2팀장 김형준 △선박금융부 선박금융1팀장 류창열 △플랜트금융부 플랜트금융1팀장 정창호 △플랜트금융부 플랜트금융3팀장 이태형 △무역금융부 국제무역팀장 최주환 △남북협력사업부 교류협력팀장 서석형 △인사부 인사팀장 류순식 △리스크관리부 여신감리팀장 이성준

◆신용보증기금 〈승진〉 ◇본부장 △부산경남영업본부 황병홍 △박재준 충청영업본부 박재준 △종합기획부 본부장 오철우 ◇부점장 △강릉 박찬기 △이천 이진환 △동래 이학송 △사하 표순천 △마산 김형중 △통영 김남호 △양산 나흥찬 △논산 이상율 △포항 최익경 △안동 서동준 △의산 이무춘 △여수 심윤섭 △목포 김재희 △대덕 강태원 〈전보〉 ◇본부장 △서울서부영업본부 한종관 △서울동부영업본부 한희석 △경기영업본부 임석순 △인천영업본부 김종신 △호남영업본부 김광서 ◇부점장 △신용보증부 한동안 △보증심사부 윤헌기 △관리부 노용훈 △인사부 박철용 △CS지원부 성의경 △감사실 정재식 △마포 김홍 △구로 강현순 △강서 김영식 △한종훈 김포 △파주 신황운 △광화문 손주형 △남대문 여상길 △의정부 홍성로 △동대문 이성곤 △구리 정해건 △삼성 김기남 △강동 곽성철 △송파 최창영 △양재 고동필 △안양 장창진 △군포 조경식 △성남 김남길 △경안 최대성 △인천 김화현 △부천중앙 박판진 △부평 최정휴 △남동 남도희 △인천서 김영삼 △시화 홍운기 △부산 홍성호 △사상 여정태 △부산중앙 유인근 △대구 최국환 △대구동 박해동 △대구북 서광수 △광주 송광일 △광주남 최정동 △대전중앙 유종선 △청주 이종석 △대전 김원회

◆전남도 〈승진〉 ◇지방부이사관 △이승옥 행정지원국장 〈전보〉 ◇지방부이사관 △주신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이호경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지역협력본부장 △박만호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배택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 강석진 △논설위원 임태순 이도운 최용규 △기획사업국장 백필현 △독자서비스국장 강동형 △편집국 정치부장 진경호 △〃 사회부장 박홍기 △〃국제부장 김균미 △〃 영상콘텐츠부장 임병선 △〃 편집위원 이석우 △〃 정치부 선임기자 이춘규 △〃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제작국 부국장 김건주 △〃 기술관리부장 김장옥 △〃 편집제작부장 정영애 △〃 기획위원 박경웅 윤상복

◆한국일보미디어그룹 HMG퍼블리싱 〈승진〉 ◇부국장대우 △경영지원실장 조용준 ◇부장대우 △골프매거진 광고부 이문우 △파퓰러사이언스광고부 김영조 △경영지원실 전략사업부 박진관

◆EBS △학교교육본부장 김봉렬 △학교교육본부 수능교육부장 김은용

부음

▲서한영(시화예치과 원장) 성일(삼성파이텍 공장장) 영창(삼성생명 차장) 영광(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씨 모친상 = 14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15일 17호 이용), 발인 16일 오전 5시30분 02-3410-6905

▲파란 에이스(본명 최성욱·가수)씨 모친상 = 14일 오전 4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5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02-2072-2018

▲김병선(전 기상산업진흥원장)씨 빙모상, 김영길(화타한의원장) 영호(자영업)씨 모친상 = 1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6일 오전 7시 02-2072-2020

▲우병조(전 한국경제신문 광고관리부장) 병태(개인사업) 병철(개인사업) 병윤(경주시 부시장)씨 모친상, 조섭제(개인사업)씨 빙모상 = 14일, 대구전문장례식장 특 301호, 발인 16일 오전7시 30분 053-965-7301

▲최병학(㈜정우글로발 대표이사) 병완(KT 부장)씨 부친상, 정광영(개인사업) 안재욱(안재욱 회계사무소 대표) 김종환(㈜릴리 부장)씨 빙부상 = 14일 오전 5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6일 오전 7시 02-3010-2231

▲이규원(전 한국편집기자협회장·아하경제 편집국장) 규태(전자신문 부장)씨 부친상, 곽이홍(재 필리핀) 오호석(이오스텍스타일 대표)씨 빙부상 = 13일 오후 6시 1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2-3010-2291

▲성지영(MBC 스포츠취재부 차장)씨 시부상 = 14일 0시10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림대 성심병원 영안실 5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31-384-2465

▲김창수(GS칼텍스 상무) 생수(한림성심대학교 교수)씨 부친상 = 13일 오후 7시39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16일 02-3410-6912

▲유재경(주식회사 거성 대표) 재환(주식회사 미주 대표)씨 부친상, 박진석(현대증권 신반포지점 WM팀장)씨 빙부상 = 14일 0시 4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02-2227-7547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종현 광고국장 김진택
정치경제부 (02)799-2655 증권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국제부 (02)799-2650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회생활부 (02)799-2661 유통경제부 (02)799-2667 사진팀 (02)799-2633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luden.co.kr

치아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 _ **루덴치과의원**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지만...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은 많지만 부모님이 편하게 웃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수 있게
루덴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치료 받으시고 밝게 웃으세요!!!
오늘 루덴치과 예약했습니다.

루덴 치과의원

LUDEN DENTAL CLINIC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10503-중-3107호

인터넷검색창에 루덴치과의원

• **명동점** T.02 757 2879 • **강남점** T.02 2051 2875 • **강서점** T.02 2668 4477 • **미아점** T.02 981 2442
• **구로점** T.02 2632 2879 • **남부터미널점** T.02 3487 0028 • **분당점** T.031 726 0772



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jsa201@

골드미스는 노후도 우아하다

지출다이어트로 '똑' 소리나는 재테크

흔히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화려하고 우아한 삶을 즐기는 30~40대 커리어우먼을 골드미스라 부른다. 골드미스는 경제력이 뛰어나고 가족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 수입의 대부분을 자기계발이나 쇼핑,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 이들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은 많은 사람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멋진 싱글로 남고 싶다면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 수명은 길지만 40대를 넘어선 후 경제참여율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대체로 골드미스들은 외식, 쇼핑 등 화려한 생활을 위한 소비성 지출이 크기 때문에 수입은 많아도 모아놓은 자산은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재의 소득이 높을지라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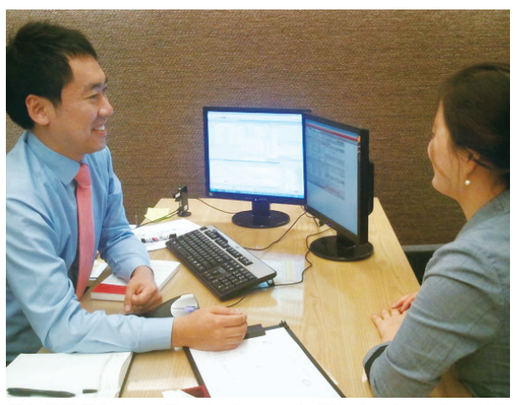
재테크를 결심했다면 먼저 자신의 소비생활부터 점검해 보자. 가계부에 하루하루 지출내역을 작성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고정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고정수입과 지출 파악이 됐다면 단기, 중기, 장기를 목표로 해 재테크 계획을 세운다.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도 기간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분산투자를 한다고 우후죽순격으로 가입하다 보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힘들어 진다.

3년, 5년 10년의 기간을 나눠 해당 시점의 목표액을 정한 다음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상하게도 돈이 생기면 꼭 쓸 일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신상품이 쏟아지면 자름신이 강림하곤 한다. 여기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사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60%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고 나머지로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다. 이미 익숙해진 소비행활을 고치기 힘들겠지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 갖고 싶은 핸드백이 생겨 충동구매를 할 경우에도 우선 카드로 긁고 다달이 분납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를 위해 매달 조금씩 비상자금을 모아놓고 그 비용으로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골드미스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동양종금증권 본사 골드센터에서 30대 중반 여성이 재테크 상담을 하고 있다.

> 외식·쇼핑·여행 등 소비성 지출 커
> 월급 60% 이상 반드시 먼저 저축
> 연금으로 은퇴후 생활자금 확보를

보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계산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한다면 우선 목돈보다는 매달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인연금, 변액유니버셜, 연금보험 등의 종신연금이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장기적 상품이라는 것이 보통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골드미스들이 꼭 가입해야 할 머스트해브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한 관리를 위해 퇴직연금을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일 경우라도 반드시 가입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근로자 추가납입분과 더불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정기예금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를들어 소득세율 25%가 적용되는 연봉 4600만원 이상연봉자의 경우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총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살다보면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비상금 성격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눈물을 머금고 적금을 해약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상품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둬야 한다. 이런 비상금 성격의 유동성 자금은 3~6개월치 월급을 마련해두고 은행의 보통예금보다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금리가 높은 CMA 통장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직장인이라면 급여통장과 소비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CMA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2.5%~2.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면서 공과금, 통신비 등의 고정비를 자동이체 하는 것이 좋고, 평소 언제든 쓸 수 있는 소비통장은 직불카드를 사용해 한달 동안 지출할 용돈을 넣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화려한 싱글족들이 가장 서러울 때는 아플 때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실비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경제력을 상실하는 노년에 집중되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젊었을때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 두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jy@

PB가 추천하는 '여성재테크'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정윤선 PB

여성들의 재테크는 특징이 있다. 먼저 남성들에 비해 경제활동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는 있지만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맞는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사에서 고객들과의 실질 재테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들의 재테크는 크게 연령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경우 주 수입원이 부모님으로부터받는 용돈이다. 따라서 현금 인출, 입금이 빈번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현금들을 쌓아 종자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재무목적이기 때문에 CMA통장을 개설해 입출금계좌로 사용을 하고 여윳돈이 매달 생긴다면 국내증시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를 추천한다.

- **20대** CMA로 입출금 관리…여윳돈은 적립식 펀드에
- **30대** 청약·연금등 세금혜택·저축기능 되는 투자해야
- **40대** 노후위해 여생 보장받는 즉시연금형 상품 가입

사회초년생인 20대 중반부터 30대는 재무목적이 첫 직장생활을 통해 들어오는 월급의 체계적인 관리와 결혼을 들 수 있다. 먼저 첫 월급을 받으면서부터 저축보다 소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의 고가브랜드의 핸드백, 의류 등의 소비에 대한 욕구가 특히 큰 연령대이지만 월급 규모에 맞는 소비를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제어가 힘들다면 전체 월급의 50%는 재테크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만 소비에 사용하는 일종의 선저축, 후소비 플랜을 추천한다. 월급의 50%는 먼저 종합청약저축 통장과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등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저축 기능이 되는 투자를 해야 한다.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소득세 환급이 있기 때문이다.

40대 이후부터는 목돈의 투자플랜이 필요하다. 먼저 지수형 스텝다운형 ELS는 연평균 12%내외의 고수익과 기초자산인 지수가 50%이상 빠진적이 없으면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수명이 10년정도 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바로 여생까지 보장받는 연금이라 할 수있다. 거치식으로 일시금을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이 사망시 까지 보장되면서 사망시 원금을 상속자에게 주는 즉시연금형 상품을 추천한다.



한식 세계화, 첫 걸음은 역시 '김치'죠

대상FNF 서울 인사동 '종가 김치월드'

보통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한식을 해외로 진출시키거나 해외 홍보활동 등의 정면승부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상FNF는 한식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종가 김치월드'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 오픈했다.

이미 전세계 40여개국에 진출해있는 대상FNF 종가집이 굳이 국내를 '한식세계화'의 거점으로 삼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김치는 전세계에 수출되는 한식 대표 상품이자 한식 세계화의 첨병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김치를 제대로 알리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20년 넘게 국내 김치산업을 이끌어 온 종가집은 국내에서부터 제대로 된 한식을 알리기 위해 올 초 '종가 김치월드'를 인사동에 오픈했다.

이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관광객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마음부터 사로잡고 차근차근 세계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대상FNF 종가집 김치월드내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보쌈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끊이지 않는 서울 한복판 전통문화 거리에 한식문화 체험공간 문열어 별다른 홍보 없이도 입소문 "다음엔 친구들과 또 올래요"

'종가 김치월드'가 인사동에 자리잡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여 있어 한식문화 체험 공간이 자리잡기에 제격인 것이다. 그동안 종가집은 횡성, 거창 등의 김치공장에서도 김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해왔지만 거리가 멀어 지속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나섰다.

오픈한지 이제 반년 남짓된 '종가 김치월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홍보 한번 한적 없지만 입소문이 퍼져 날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종가 김치월드'의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와서 김치나 떡볶이를 먹어본 경험은 있어도 직접 레시피를 배우며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며 "나중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박대기 대상FNF 마케팅팀장은 "종가 김치월드에서는 김치, 떡볶이, 막걸리 등 한식 레시피를 배우고,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을 통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한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서울이 한국의 대표 도시임에도 관광명소 및 문화체험거리가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손쉽게 한식 문화를 체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종가 김치월드'를 오픈하게 됐다 "고 말했다

대상FNF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종가 김치월드'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각 수출국마다 현지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할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자연스럽게 김치와 한식을 알리고 있는 것. 김치의 세계화에는 한국김치의 맛과 특징을 살린 오리지널 김치를 알리는 방향과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 시키는 방향 두 가지가 있다.

종가집은 수출 제품도 100%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해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 생산하며 기본적으로는 한국김치의 맛을 살리되 현지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제품에도 현지화를 추구하는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의 김치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치 본래의 맛과 향을 아는 소비자들을 먼저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김치 그대로를 알리는 1단계를 넘어 현지화에 맞추는 2단계에 접어들어 일본인의 식문화를 고려해 오징어, 표고버섯 등을 첨가한 김치를 출시하고 있다.

또한 종가집은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김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치라는 음식이 생소한 영어권 시장에서는 김치의 맛 알리기에 집중해 CF를 활용하며 음식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고, 중화권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김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종가집은 현재 전 세계 김치 수출 1위, 김치 수출 국가 수 1위 자리를 당당히 지키면서 한식을 세계화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상FNF 박대기 마케팅팀장은 "종가집이 대한민국 대표 김치브랜드로 오랜 사랑을 받아 온 만큼, 한식세계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가집 김치'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김치' 더 나아가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jy@

▌신혼부부·다문화가정·외국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인기

종가집 김치월드에서는 다양한 타깃층을 대상으로 한식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식을 더욱 가깝게 느낄게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쿠킹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식문화체험 패키지도 수성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다문화 가정 주부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켜주기 위해 '종가집과 함께하는 맛있고 건강한 특별 쿠킹클래스'를 진행한 바 있다. 프로그램은 보쌈김치 레시피 교육, 속 넣기 체험 후 김치전, 떡볶이 등 대표적인 한식을 배우고, 자신이 만들어본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다양한 방식의 한식 문화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에는 뮤지컬 '난타'와 손잡고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국문화체험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대표 공연과 음식을 한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종가집의 한식문화체험공간 '김치월드'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한식 체험코스와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 뮤지컬 '난타'를 시중가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김치월드'의 프리미엄 한식 체험코스에서는 보쌈김치와 김치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실습이 끝난 뒤 자신이 만든 보쌈김치는 직접 포장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며 매콤한 김치떡볶이의 시식과 함께 막걸리도 시음해 볼 수 있다. 또한 김치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의 레시피북을 제공해 본국에 돌아가서도 한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쌈김치·김치떡볶이… 직접 만들어 맛보고 막걸리까지 한 잔~

박대기 대상FNF 마케팅 팀장은 "국내 유일한 한식체험공간 '김치월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할만한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며 한식의 세계화는 물론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jy@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월드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김치의 역사 및 유래 등을 보여주는 정보존을 운영하고 있다.



힘껏 주먹을 뻗어봐! 절망이 사라져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김주희 지음
다산북스 펴냄
12000원
246쪽

김주희가 '여성 프로복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에 겪어야 했던 아픔은 너무 많았다. 집나간 엄마, 생활능력 없는 아빠,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한창 권투에 몰두할 때 아빠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링 위에 계속 서 있기 위해 달리고, 싸우고, 버텼다.

돈 없어도 달리기만 잘 하면 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노력했지만, 세상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억울함만 배우고 펼쳐보지도 못한 꿈을 접었다. 억울함 끝에 발견한 빛은 가로세로 7m의 링 위였다.

16세에 국내최초로 여자 프로복서에 데뷔한 그녀는 올해 데뷔 10년차를 맞았다. 그 사이 '챔피언'이라는 타이틀도 얻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런 그녀에게 독기와 오기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큰 오산이다. 그녀는 이런 아픔들 속에서 긍정과 희망을 전한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청춘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자신에게 짐 지워진 힘겨운 상황을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어 한다. 스물여섯 챔피언 김주희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20대들에게 필요한 건, 다 이해한다는 말랑한 위로보다는,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다치고 깨지면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수십 번의 절망을 각오하면, 그게 수백 번의 희망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녀가 정말 지켜내려고 것은 단순히 챔피언 벨트가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의 인생이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멍이 들지언정, 당당하고 떳떳하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한구석에 자리한다.

그녀는 링 위에서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는 아픈 청춘을 이겨내고 극복해온 김주희의 이야기로 현 20대를 살아내고 있는 젊은이들을 토닥인다.

이 책에서 김주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 삶의 절망 끝에서 권투를 만나던 순간, 한 발짝 한 발짝 꿈을 향해 팔을 뻗고 발을 내딛던 시간들, 모든 좌절도 끝내는 '사뿐히 즈려밟고' 일어서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하고 또 더 빛나게 해주는 가족과 관장님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지금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누구나 자신의 링을 선택하고 그 링 위에 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링이든, 힘겨운 순간과 시시때때로 마주하게 된다. 다치고 깨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뼈아픈 패배나 실패를 맛보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한 방 크게 얻어맞아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마음껏 아파하고 낙심했다면, 이제는 힘껏 주먹을 내뻗을 때다.

스물여섯살 챔프 김주희의 세상을 향한 희망 메시지

이제 우리도 주먹을 뻗어보자. 스물여섯 챔피언 김주희, 그녀처럼.

"지독하게 고생한 사람에게, 세상은 그만하면 되었으니 이제부터 잘 살아보라고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하기 위해서 권투를 하지만, 권투로 성공하기까지 먼 길이 기다리고 있다. 헝그리 정신이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이겨내면 헝그리 정신을 기억하지만, 끝내 실패하면 아무도 그 고통을 알아줄 수가 없다. (p.61-62)"

한옥주 기자 gracebyok@



16세에 최초 여성복서로 데뷔해 19세에 챔피언에 오른 프로복서 김주희.

주간 베스트셀러 <7월 8~14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2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여백미디어
3	운명	문재인	가교
4	서른에서 멈추는 여자 서른부터 성장하는 여자	아리카와 마유미	웅진지식하우스
5	인생의 절반쯤 왔을때 깨닫게 되는 것들	리처드 J.라이더	위즈덤 하우스
6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북로드
7	아이의 자존감	정지은	지식채널
8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9	시크릿 더 파워	론다 번	살림
10	10년 후 미래	대니얼 앨트먼	청림출판

자료:교보문고

이근배·정희성 등 작가 28명 도서관서 특강

시인과 소설가 등 작가 28명이 전국 도서관에서 특강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공광규 시인 등 28명의 작가가 14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74개 도서관에서 마련되는 '문학작가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4일 광주북구 일곡도서관에서 송수권 시인의 시 쓰기 강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근배, 정희성 등 시인 15명을 비롯해 서정인, 심상대 등 소설가 6명, 아동문학가 5명, 평론가 권오룡, 수필가 서숙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2009년부터 소외 지역 도서관에 지역 문학 작가를 파견하는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 사업을 시행했으나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유명 작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 주민의 문학적 갈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화제의 책

집단이 '똑똑한 개인'과 하나 되려면…



▌하나 되는 힘, As One
머다드 바가이 지음/딜로이트 컨설팅 옮김/청림출판 펴냄/22000원/425쪽

숨 가쁜 환경 변화가 밀려들면서 세계는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집단이 아닌 개인이 우선시되고, 조직의 목표에 개인을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만족도를 위해서 대기업도 박차고 나오는 풍토가 조성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업 특유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똑똑해진 개인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신간 '하나 되는 힘, As One'(원제:As One)을 통해 새로운 멘탈 모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전 세계 147개국에서 경영 및 회계 부문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딜로이트가 수년간 연구 분석한 결과물인 '애즈원'은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능력을 하나로 모아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리더십 전략인 동시에 실행 솔루션이다.

두 천재 철학자의 목숨 건 은밀한 만남



▌스피노자는 왜 라이프니츠를 몰래 만났나
매튜 스튜어튜 지음/석기용 옮김/교양인 펴냄/27000원/632쪽

스피노자는 이중으로 추방당한 자였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단자로 몰려 파문당했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무신론자 유대인으로 낙인찍혔다. 암살 위협까지 받게 되자 그는 고향 암스테르담을 떠나 헤이그로 숨어들었다. 그는 억압적인 신권정체 타도와 자유로운 민주정체 수립을 주장한 근대 최초의 정치 철학자이자 급진 혁명가였다.

라이프니츠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품은 '옴니마니아(omnimania)'였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사상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품었고, 무너져 가는 기독교 세계를 재통합하는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의 야심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만나 격하게 흔들렸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적 문제의식으로 생동한다. 17세기는 철학하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태로운 시대였으며 동시에 그 위태로운 시대를 별처럼 빛냈던 불온한 천재들의 시대였다.

당신의 무거운 가방 가볍게 꾸려라



▌인생의 절반쯤 왔을때 깨닫게 되는 것들
리처드 J 라이드 지음/김정홍 옮김/위즈덤 하우스 펴냄/13000원/286쪽

강을 다 건넌 뒤에도 여전히 나룻배를 짊어지고 가는 나그네가 있다. 그의 다음 여정은 강이 아니라 산인데도 그 무거운 나룻배를 내려놓지 못한다. 그 나그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 있다. 또한 그는 인생에서 상실한 것들, 한때 자기 것이었으나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한다. 이 책은 이런 모든 짐이 자신을 바람직한 삶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필요 없는 짐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매일매일 짊어지고 있던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꾸려보라고 조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바꾸는 법을 찾을 때, 무거운 짐을 버리고 집착에 시달리지 않는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소설 '토정비결'의 작가 이재운 장편 역사소설

왕의 눈물

왕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 홍대용, 문장가 박지원 그리고 개혁군주 정조, 이들의 커넥션을 파헤친다!

책사들이 꿈꾸는 뺏고 빼앗기는 개혁 로드맵!
인재들은 설 곳 없고 탐관오리만 득실대는구나,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조선 개혁 로드맵을 찾아라!

잠룡들의 사선을 넘나드는 지략과 패권 전략!
새로운 세상이 온다, 백성을 위해 공부하자.
연암결사 책사들의 속고 속이는 패권싸움에 엇갈린 운명이 펼쳐진다.

지식과 지혜는 책사! 지략과 패권의 선택은 백성!
갑자년 개혁 로드맵, 하늘이 버린 왕의 눈물.
자주정신을 힘차게 떨친 과거의 영웅을 다시 부른다.



이재운 지음 | 전3권 | 각권 13,000원

현문미디어
www.hmbooks.co.kr 02)706-2367



장희진 최지우 서영희

미녀 3인방 2년만에 안방인사

최지우 '지고는 못살아' 여변호사 변신
서영희 '천 번의 입맞춤' 돌싱 커리어우먼
장희진 '스파이 명월' 재벌 상속녀 열연

한동안 안방극장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배우들이 반가운 복귀소식을 알려왔다. 한류스타 최지우를 비롯해 결혼 후 처음 연기에 복귀하는 서영희, '전설의 고향'이후 처음 컴백하는 장희진까지 모두 2년만에 복귀라 눈길을 끈다.

배우 최지우가 매력적인 여변호사로 변신해 2년 6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최지우는 8월 말 방송 예정인 MBC 새 수목극 '지고는 못살아'(가제, 극본 이숙진, 연출 이재동)를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지고는 못살아'는 변호사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가볍고 따뜻하게 다룬 드라마로 최지우는 당차면서도 밝고 사랑스러운 여자 변호사 은재역을 맡았다.

최지우는 복귀작을 결정한 뒤 "대본을 읽은 후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웠다"며 만족감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작진은 남자 배우 캐스팅에 관해 "한류스타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아직 남자 배우에 대한 최종 캐스팅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지우는 드라마 '스타의 연인'(2009년)과 영화 '여배우들'(2009년) 이후 휴식기를 보내왔다.

배우 서영희도 2년 만에 '천 번의 입맞춤'으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서영희는 MBC 주말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후속으로 방영되는 '천 번의 입맞춤'에서 어릴 적 부모의 이혼 후 동생을 돌보며 장녀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살아온 씩씩하고 명랑한 캐릭터 우주영을 맡았다. 우주영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 당차게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하며, 연하남 장우빈(지현우)와 러브라인을 형성한다.

서영희는 지난 5월 결혼 후 처음 드라마로 얼굴을 보이며 '천 번의 입맞춤'은 오는 8월 20일 첫 방송된다. 이번 작품으로 서영희는 지난 2009년 '선덕여왕' 이후로 2년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게 됐다.

서영희의 소속사 측은 "영화 제의가 많았지만 서영희가 '천 번의 입맞춤'의 시놉시스와 대본을 단숨에 읽어 내려갈 정도로 재밌어했다"며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밝은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천 번의 입맞춤'은 돌싱녀 우주영과 전직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에이전트 장우빈의 알콩달콩한 로맨스 드라마다.

배우 장희진은 지난 4일 첫 방송된 KBS 월화드라마 '스파이 명월'로 안방극장을 찾아 활약하고 있다. 장희진의 복귀도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 이후 2년 만이다.

장희진은 '스파이 명월'에서 호텔 재벌의 상속녀이자 여배우가 직업인 주인아로 등장한다. 주인아는 세상도 사랑도 돈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로,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캐릭터다. 강우(문정혁)와 최류(이진욱)가 한명월(한예슬)을 좋아하자 강한 질투심을 느끼며 명월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다.

촬영에 한창인 장희진은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면서 "자신감 넘치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린 마음을 지닌 캐릭터를 만들어 사랑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퀵 VS 고지전

"개봉 날짜도 바꿨다 화끈하게 붙어보자"

20일 개봉… 이번 주말 유료 시사회로 경쟁 시작

오는 20일 개봉하는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고지전'과 '퀵'이 오는 주말 유료시사회를 열기로 결정해 개봉전부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유료시사회의 경우 일반 상영과 마찬가지로 관람료를 지불하고 관람을 하기 때문에 박스오피스에 집계돼 사실상 이번 주부터 흥행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지난 13일 고지전 측은 오는 16~17일 주말에 전국유료시사회 개최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과 주연배우인 신하균과 고수가 서울 일대의 영화관을 돌며 무대인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고지전의 유료시사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퀵도 16~17일 전국유료시사회와 무대인사를 결정해 맞불작전에 나섰다. 퀵은 같은 기간 주연배우 이민기, 강예원, 김인권이 부산을 방문, 퀵을 보러온 관객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어서 고지전보다 무대인사를 하루 늘렸다. 퀵의 이같은 조치



퀵



고지전

는 같은 지역에서 무대인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앞서 두 영화는 오는 21일 개봉예정이었으나 고지전이 개봉날짜를 하루 앞당겼다. 이에 뒤질세라 퀵도 고지전과 같은 날로 개봉일을 변경하기도 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고갔다.

고지전은 1953년 한국전쟁의 최전방인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인민군의 교착전을 그린 작품으로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영화를 표방하고 있다. 반면 퀵은 30분내에 오토바이로 폭탄을 배달하라는 협박을 받고 종횡무진 거리를 누비는 액션 오락영화로 두 영화는 지향점이 다르다.

고지전과 퀵에 모두 출연한 배우 고창석은 "박쥐가 된 기분" 이라며 "두 영화 모두 한국 여름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퀵을 연출한 조범구 감독도 "장르가 다른 영화인만큼 다같이 시장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지전과 퀵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아름 기자 jar43@





브리티시오픈 첫날 수많은 갤러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티브 스트리커가 6번홀 '항아리' 벙커에서 샷을 하고 있다. AP/연합

무명 돌풍 "황중곤이 누구야"

브리티시 오픈 1R…2언더로 깜짝 공동 6위
비요른·루이스 공동 1위…최경주·양용은 주춤

저주의 잔(저그)이 심술을 부렸나. 프랑스산 적포도주(클라레)가 강호들에게 '피'를 뿌렸다. 달 표면같은 골프코스에서 선수들은 스코어를 줄이기보다 보기를 범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았다.

비롯 첫날이지만 브리티시오픈 주인공은 로리 맥길로이(22.북아일랜드)나 루크 도널드(24.잉글랜드)가 아니었다. 40세 노장과 아마추어가 선두에 나섰고 한국선수 역시 '무명' 황중곤(19.타이틀리스트)이 신바람을 일으켰다. '제주 야생마' 양용은(39.KB금융그룹)과 최경주(41.SK텔레콤)도 주춤했다.

비가 뿌리는 강풍속에서 황중곤은 15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켄트주 샌드위치의 로열세인트 조지스 GC(파70. 7,211야드)에서 개막한 제140회 브리티시오픈(총상금 730만 달러) 2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6위에 올랐다.

한국프로골프투어 시드권이 없어 일본행을 택한 황중곤은 지난달 26일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미즈노오픈 최종일 천운의 홀인원을 골라내며 6언더파를 몰아쳐 깜짝 우승을 차지,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을 따낸 선수다.

큰 경기에 강한 양용은은 3,4번홀에서 줄 보기를 범하며 불안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들어 14번홀 버디로 1오버파 71타를 쳐 최경주와 함께 공동 51위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버디3개를 골라냈으나 더블보기1개, 보기2개를 범해 스코어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은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곁들여 1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18위에 랭크됐다. 노승열은 전반에 1타를 잃었지만 16,17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골라내 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어 냈다.

강력한 우승후보 루크 도널드와 로리 맥길로이는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함께 1오버파를 쳐 공동 51위에 그쳤다.

대타로 출전기회를 얻은 토마스 비요른(40.덴마크)과 아마추어 톰 루이스(20.잉글랜드)가 공동선두에 나섰다.

비요른은 7개, 보기2개로 5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루이스 역시 버디 7개, 보기 2개를 곁들였다.

비요른은 8년 전 이곳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15번홀까지 2타차 선두를 달리다가 16번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해 벤 커티스(미국)에 우승컵을 넘겨준 뼈아픈 기억이 다.

비요른은 이번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이 없었지만 피지의 흑진주 비제이 싱이 부상을 이유로 기권하는 바람에 출전권을 얻었다.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과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2오버파로 공동 71위,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4오버파로 공동 107위,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 상금왕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5오버파 75타로 공동 126위에 그쳐 컷오프를 걱정하게 됐다. 안성찬 기자 golfahn@

차세대 국산馬들 힘찬 '질주'

17일 제9경주(국2 1400M 별정V)

차세대 국산마를 놓고 17일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새강자'(1999, 2000년), '쾌도난마'(2001년), '백광'(2006년) '나이스초이스'(2009년) 등 내로라하는 국내산 명마들을 배출해낸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스타 경주마의 등용문인 제17회 문화일보배 대상경주가 오는 17일 서울경마공원 9경주(국2 별정V) 1400m 단거리 경주로 열린다.

이번 대상경주는 차세대 한국경마를 짊어질 국내산 2군마들에게 출전권을 주고 있는 경주. 우승삼금이 1억 8백만원이다.

2차 출마등록까지 총 17두의 국내산 준족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 3두를 제외한 14두의 마필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주에 참가한 마필간 능력차이가 거의 없어 우승마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경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주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수다.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는 경주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요동제왕'과 '슈퍼리치'가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메들린스피드'와 '리겔레이디'가 호시탐탐 선두권 도약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가야보대', '디데이플러스'도 주요 복병마로 거론되고 있다. 안성찬 기자 golfahn@

눈여겨 봐야 할 경주마



요동제왕(국2, 4세 수말, 42조 김명국 조교사)

지난 5월 스포츠조선배 대상경주 우승마다. 당시 선두권에서 경주를 시작한 요동제왕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뒷심을 보여주며 감격의 우승을 차지해 큰 관심을 받았다. 500kg이 넘는 당당한 체격에 선추입이 자유롭고 파워가 일품이다.

경주습성은 선추입이 모두 가능한 자유마로 분류되고 있는데다 기복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주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다. 최근 치른 5번의 경주에서 우승 3회, 2위 2회를 기록하며 복승률 100%를 자랑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초반 순발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흠.

통산전적 12전 4승 2위 4회 승률 : 33.3 % 복승률 : 66.7 %



메들린스피드(국2, 4세 수말, 5조 우창구 조교사)

다소 기복 있는 성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능력상 국내산 2군 강자에 속한다. 강력한 선행이 주무기다.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 작전으로 경주에 나서 빠른 전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1400m 최고 기록(1:28.9)이 다른 말을 앞서고 있어 충분히 입상권을 노려볼 만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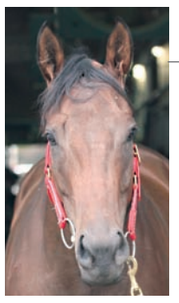
부담중량 면에서도 그동안 57kg이라는 높은 중량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하다. 초반 선행싸움 없이 편안하게 선두에 안착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행에 실패할 경우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통산전적 18전 6승 승률 : 33.3 % 복승률 : 33.3 %



슈퍼리치(국2, 4세 수말, 39조 최혜식 조교사)

지난 5월 스포츠조선배 대상경주에서 아쉽게 4위를 기록했다. 기본적 능력이 충분한 마필이다.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 대상경주와 마찬가지 부담중량인 57kg을 짊어지고 뛰게 된다.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추입력이 강점이다. 선행마들의 초반 자리싸움에 따른 전력소진 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대상경주의 특성상 치열한 전개가 예상되며 14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두그룹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어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다. 통산전적 16전 5승 2위 2회 승률 : 31.3 % 복승률 : 43.8 %



리겔레이디(국2, 4세 암말, 37조 천창기 조교사)

최근 2연승을 올리며 상승세에 있는 마필. 2군 데뷔무대였던 직전경주에서 기존 2군 강자들을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주습성은 선추입이 모두 가능한 자유마. 이번 경주처럼 혼전양상을 보이는 경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장거리 경주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약 9개월만에 뛰는 1400m경주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여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산전적 9전 5승 승률 : 55.6 % 복승률 : 55.6 %

경마 출마표

●:10승미만 ▲:10승이상~20승미만 △:20승이상~30승미만

서울 16일 토요일

제 1경주 국6 1200M 마령 일반 【출발 14:2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레드머니	한국	수	3	55	하재영	이신영	일진코스메틱
2	퍼펙트캡틴	한국	수	3	55	이상혁	배휴준	류재욱
3	폴리	한국	암	3	54	부민호	홍대유	김인호
4	마이티포에버	한국	암	3	54	문세영	손영표	최병권
5	원석발굴	한국	수	3	54	원정일	유재길	이건행
6	가을요정	한국	암	3	54	박병윤	박원덕	고광숙
7	퍼스트폴리오	한국	거	3	54	정기용	구자흥	포트폴리오
8	아라가야	한국	거	3	55	문정균	배휴준	조금제
9	윈드위닝	한국	수	3	55	마코토	서범석	오상철
10	메니피매직	한국	암	3	52	△김혜선	지용훈	남기태
11	뉴돌격	한국	거	3	55	전덕용	양재철	이건행
12	오복이	한국	거	3	51	●유미라	고옥봉	전좌식

제 2경주 국5 1200M 마령 일반 【출발 14: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블루센세이션	한국	거	3	55	이상혁	안병기	최건호
2	쾌감행진	한국	수	3	55	마코토	김명국	구본순
3	블레스	한국	수	3	55	심승태	서범석	고창협
4	사일런트준	한국	거	3	55	정기용	박대흥	지원철
5	코리아챔프	한국	수	3	55	박태종	박흥진	㈜늘푸른목장
6	에스웨이	한국	암	3	54	부민호	서정하	신한은행
7	센친구	한국	수	3	55	마이	박희철	경규환
8	자금성	한국	암	3	54	문세영	정호익	권도윤
9	천승	한국	수	3	51	●이강서	안병기	은희만
10	대산캡틴	한국	거	3	55	문정균	김점오	오종택

제 3경주 국6 1000M 마령 일반 【출발 15:2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비천태왕	한국	수	3	55	윤태혁	곽영효	전영채
2	스핀업	한국	암	2	53	문세영	김양선	길용우
3	브레이브마하	한국	거	3	55	오경환	구자흥	청호컴넷(주)
4	승승필승	한국	수	2	53	마이	박희철	신영식
5	캐럿	한국	암	3	54	황순도	박원덕	고창협
6	장송	한국	암	3	54	김귀배	임봉춘	강승연
7	서라벌여왕	한국	암	3	54	박병윤	박천서	이상승
8	천추공주	한국	암	3	54	정기용	천창기	가명풍
9	천지대승	한국	수	3	55	부민호	서정하	구자선
10	파워풀미스지	한국	암	2	53	지하주	서인석	강종우
11	보난자	한국	거	3	55	마코토	김문갑	김채겸
12	돈달산	한국	암	3	54	윤영민	지용훈	조용학

제 4경주 혼4 1000M 마령 일반 【출발 15: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골드빅	미국	수	2	53	지하주	서인석	허영희
2	더처스젬	미국	암	2	53	오경환	박대흥	(주)케이씨피
3	버니스케이	뉴질랜드	거	4	56	최원준	박종곤	김광두
4	헤븐리서바이버	미국	수	3	54	☆박시천	김양선	지대섭
5	파워클린업	뉴질랜드	거	4	56	이상혁	김효섭	민형근
6	퍼스트파트너	미국	수	2	53	조인권	김호	지대섭
7	도나펀치	미국	수	3	53	△이기웅	홍대유	이선우
8	새먼즈	미국	거	3	55	마코토	양재철	한광세
9	문학의강자	미국	수	2	53	김귀배	이희영	김재영
10	능력만발	호주	수	3	54	원정일	유재길	허건호
11	용화산	한국	암	3	52	마이	이희영	김윤구
12	오플리브라잇스타	미국	수	2	53	김옥성	박희철	세계건설(주)

제 5경주 국4 1700M 별정Ⅲ-B 일반 【출발 16:2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치킨게임	한국	수	4	54	박병윤	하재흥	이종철
2	웨스턴프린스	한국	암	5	51	마코토	정호익	박성구
3	윙윙	한국	암	4	52	문세영	하재흥	이중연
4	챔피언파티	한국	거	4	52	이상혁	박대흥	남승현
5	대한호걸	한국	수	3	55	박태종	박윤규	장석린외1인
6	승승만승	한국	수	3	56	마이	박희철	신영식
7	슈퍼클래스	한국	수	5	50	●이강서	안병기	최건호
8	다크나이트	한국	수	3	55	윤태혁	우창구	변갑한
9	스페셜싱	한국	거	4	52	조인권	김호	박성구
10	퍼포먼스	한국	거	4	54	☆박상우	임봉춘	김현래

제 6경주 국3 1700M 별정V-B 일반 【출발 16: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일손	한국	거	4	53	△장추열	박천서	이동일
2	퍼펙트타이거	한국	수	4	55	이상혁	배휴준	이성재
3	굿메시지	한국	거	4	55	마코토	서범석	오상철
4	나의축복	한국	거	4	53	●이강서	안병기	조명식
5	야호샤니	한국	거	5	50	●김정준	박재우	이태식
6	백두번쩍	한국	수	5	51	△이기웅	홍대유	이종원
7	마오노	한국	암	3	53	박태종	곽영효	권광세
8	베스트스윙	한국	거	5	54	박을운	박희철	전기섭
9	꽃누리	한국	암	4	53	이준철	김대근	김병현
10	번개강호	한국	수	3	55	문세영	김양선	강석대
11	리치몬드환희	한국	수	3	56	조인권	김호	김휘남
12	고운짓	한국	암	4	52	김철호	정지은	신승열

제 7경주 국4 1400M 별정Ⅲ-B 일반 【출발 17: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원더풀투나잇	한국	암	5	54	최원준	지용철	김선식
2	와인향기	한국	암	4	52	황순도	최상식	강준구
3	플리트보이	한국	수	3	56	신형철	박원덕	이미경
4	팍스코	한국	거	3	56	김동균	안해양	임두인
5	나비꿈	한국	암	3	53	이준철	김대근	김경민
6	플라잉펀치	한국	수	4	55	전덕용	양재철	장철환
7	참해밀	한국	암	4	52	마이	박천서	한일사료
8	실크로드	한국	암	4	52	마코토	이희영	김윤구
9	레인즈캣	한국	수	3	57	문세영	김양선	전기섭
10	마블러너	한국	거	4	55	☆박상우	강명준	이광수a

제 8경주 국5 1400M 마령 일반 【출발 18: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보아이디얼	한국	수	4	57	김옥성	김순근	안태건
2	금빛	한국	암	4	55	김동균	안해양	윤영기
3	강자제패	한국	수	5	52	●김정준	김춘근	이선종
4	바라는마음	한국	거	4	57	심승태	고옥봉	정이남
5	퍼펙트카	한국	수	3	51	●이강서	배대선	이승근
6	강호최고	한국	수	4	57	조인권	서홍수	명인환
7	궁니르	한국	수	3	55	김철호	정지은	김상용
8	스카이트레인	한국	암	3	54	정기용	박대흥	(주)케이씨피
9	대마신	한국	거	5	56	이상혁	배휴준	홍준기
10	노블하모니	한국	암	4	55	이애리	이희영	김윤구
11	메이비	한국	수	3	55	윤태혁	우창구	변갑한

제 9경주 국2 1900M 핸디캡 일반 【출발 19: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아리새	한국	암	5	50	마이	이희영	오호극
2	브랜튼	한국	암	4	52.5	김동균	박원덕	가명풍
3	아티스트	한국	암	4	53	조인권	김호	오상철
4	축복의통로	한국	암	5	53	문정균	안병기	권혁인
5	셀라	한국	암	4	50	이금주	우창구	가명풍
6	루비퀸	한국	암	3	53	이상혁	김효섭	김영식
7	페르소나	한국	암	5	53.5	김귀배	임봉춘	민홍기
8	럭키박스	한국	암	3	54	박태종	박흥진	김도윤
9	우리꽃	한국	암	4	54	신형철	신우철	조진환
10	계명의빛	한국	암	4	53	문세영	최영주	김진태
11	메이저걸	한국	암	5	52.5	원정일	유재길	박종률
12	배블클래식	한국	암	4	54.5	이정선	임봉춘	김동호

제 10경주 혼1 1900M 핸디캡 일반 【출발 20:2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케이제이칸	일본	거	6	55.5	이기회	김춘근	전영규
2	금비	미국	암	4	53	조인권	김학수	배태곤
3	동방로즈	한국	암	4	51	최원준	신우철	탐라사료
4	기쁨누리	미국	암	4	50.5	문정균	우창구	이보원
5	박삭스	미국	수	6	50	△김혜선	서정하	김창식
6	인디언시크릿	미국	수	5	50.5	마이	박희철	권경자
7	티파니의꿈	호주	수	6	50	●유미라	박흥진	홍상기
8	카키홀스	호주	수	5	50	마코토	임봉춘	김현래
9	제왕탄생	미국	수	5	54	문세영	곽영효	김선교
10	바다의별	미국	수	5	50	△이기웅	박흥진	홍상기
11	장군바다	한국	거	6	54.5	△장추열	배대선	김진구

제 11경주 혼3 1400M 별정Ⅵ-B 일반 【출발 20:5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강력한승리자	한국	수	4	52	김동철	지용철	조창석
2	진두봉	미국	거	4	53	☆박시천	고옥봉	전좌식
3	브라보군단	미국	거	3	55	오경환	박대흥	류순곤
4	크로우카운티	미국	거	3	51	●김정준	김춘근	이선종
5	한얼검	한국	수	4	52	김동균	김문갑	김재영
6	수봉산	미국	수	3	54	김옥성	박희철	세계건설(주)
7	한얼도	한국	거	4	52	마코토	김문갑	박성구
8	보스턴올레	미국	수	3	56	정기용	천창기	조금제
9	지상군주	미국	거	3	57	박태종	김순근	박재천
10	브라운걸	한국	암	4	50	△김혜선	박흥진	명인환
11	슈퍼이즈칸	호주	수	4	54	부민호	홍대유	대한사료
12	갈마일침	호주	수	3	53	박병윤	유재길	황철연

서울 17일 일요일

제 1경주 국5 1200M 마령 일반 【출발 14:2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우진여제	한국	암	3	54	윤태혁	김양선	홍평우
2	퀸비	한국	암	3	53	☆박상우	박대흥	(주)케이씨피
3	뷰티캣	한국	암	3	50	●김정준	정호익	차미성
4	새벽하늘	한국	암	4	55	박태종	김명국	박양호
5	쾌속질주	한국	암	3	54	박을운	김순근	김재성
6	마이더스빅터	한국	암	3	54	문정균	안병기	박형인
7	슈퍼블루	한국	암	5	53	△이기웅	양재철	신한은행
8	비카드리머	한국	암	3	54	문세영	김점오	김종식
9	올웨이즈윈	한국	암	4	55	신형철	이인호	김명식
10	선봉여제	한국	암	4	55	김철호	곽영효	조진환
11	깜짝연출	한국	암	3	54	양희진	유재길	진교원
12	천사의날개	한국	암	5	50	●이강서	하재흥	이용대

제 2경주 국6 1200M 마령 일반 【출발 14:45】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에버마스터	한국	거	3	55	문정균	배휴준	권택종
2	치프팬더	한국	거	3	53	△김혜선	안해양	이효선
3	과천킹	한국	수	3	55	김영진	서인석	서상주
4	홀리마운틴	한국	암	4	55	이동국	신삼영	장철환
5	블러싱스타	한국	수	3	55	신형철	김윤섭	박태훈
6	서라벌영웅	한국	거	3	55	전덕용	박천서	이상승
7	공명대로	한국	암	3	54	박병윤	박원덕	명인환
8	댄싱하이츠	한국	암	3	54	조인권	김학수	지대섭
9	산록도로	한국	거	4	55	△이기웅	김점오	강종우
10	호걸풍	한국	수	3	55	문세영	안병기	최건호
11	본지그	한국	암	3	54	부민호	홍대유	지대섭
12	스위트멜로디	한국	암	4	54	☆박시천	최혜식	박용훈

제 3경주 국6 1000M 마령 일반 【출발 15:10】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특급이벤트	한국	수	3	55	오경환	손영표	김종한
2	즐거운세상	한국	거	3	54	☆박상우	신삼영	우순근
3	퍼펙트러브	한국	암	3	54	윤태혁	곽영효	신항철
4	대동제일	한국	수	2	53	문세영	하재흥	김경민
5	아스떼리	한국	암	3	54	조인권	박윤규	김양호
6	마이젬	한국	암	3	54	원정일	유재길	박용훈
7	센새미	한국	암	3	54	박을운	박희철	김채형
8	프라임러너	한국	거	3	55	김영진	배대선	이광수a
9	베스트브라운	한국	수	3	55	최원준	박윤규	윤훈현
10	지수사	한국	암	3	53	☆박시천	최혜식	배석두
11	노랑개나리	한국	암	2	53	윤영민	지용훈	정수남
12	운기	한국	암	3	54	이동국	신삼영	김항균

제 4경주 국6 1000M 마령 일반 【출발 15:35】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굿파트너	한국	암	3	54	오경환	천창기	장석영
2	부부젤라	한국	암	3	54	문세영	김점오	김창희
3	리틀헌터	한국	수	3	55	이애리	최상식	오상철
4	대성파워	한국	암	3	54	양희진	이인호	함운일
5	대명불패	한국	수	2	51	△김혜선	서홍수	백수현
6	베스트시티	한국	암	3	54	허재영	배휴준	허영희
7	제국의축제	한국	암	3	53	김영진	서인석	김경민
8	희망의다리	한국	수	3	55	김동철	지용철	강성보
9	노블원	한국	수	3	55	원정일	손영표	박상선
10	동보환희	한국	암	3	52	△장추열	신삼영	문석현
11	미스터스마일	한국	거	2	53	조인권	김호	부창클럽
12	과천탈환	한국	수	3	55	이준철	손영표	이재원

제 5경주 국5 1300M 마령 일반 【출발 16:05】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팔기군	한국	수	3	55	이동국	지용훈	남기태
2	정상나래	한국	거	3	53	△장추열	배대선	최홍일
3	설마설마	한국	암	4	54	☆박상우	양재철	박현종
4	서남풍	한국	수	4	57	문정균	김순근	이윤화
5	대화랑	한국	수	3	55	김철호	정지은	김지훈
6	검은독수리	한국	거	4	57	문세영	이신영	일진코스메틱
7	차밍걸	한국	암	6	50	●유미라	최영주	변영남
8	톰보이	한국	암	4	51	●김정준	김호	김길중
9	비행대장	한국	수	4	57	오경환	이희영	오호극
10	새벽날개	한국	수	3	55	최원준	지용철	명인환

제 6경주 혼4 1300M 마령 일반 【출발 16:35】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라이트이어엠	미국	수	2	53	최원준	지용철	오만준
2	플로리다의별	미국	수	3	55	문정균	김대근	최상섭
3	익사이팅러너	한국	거	3	53	한창민	강명준	이광수a
4	한혈천용	미국	수	3	53	△장추열	배대선	구자선
5	라온제나	미국	암	2	53	문세영	김문갑	경림건설(주)
6	해피위켄드	호주	수	3	54	박병윤	박원덕	김성두
7	브라운레전드	미국	거	3	55	오경환	구자흥	정이남
8	에이피두바이	미국	거	3	55	박태종	박흥진	정진태
9	비더퍼스트투노	미국	거	3	55	부민호	최혜식	박용훈
10	무한투혼	뉴질랜드	거	6	56	이동국	지용훈	조용학

제 7경주 국4 1700M 별정Ⅲ-B 일반 【출발 17:25】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기쁨의근원	한국	거	4	50	●김정준	안병기	권혁인
2	킹파이팅	한국	수	3	56	조인권	김호	윤건구
3	프로인그란	한국	거	3	54	오경환	박대흥	지대섭
4	한혈화신	한국	암	4	50	△장추열	배대선	서정훈
5	와일드캣	한국	암	3	52	문세영	정호익	박성구
6	네버로스	한국	수	5	54	이정선	임봉춘	김진태a
7	햇빛초롱	한국	암	4	51	문정균	최영주	홍상진
8	길상여의	한국	수	5	51	☆박상우	이희영	서영석
9	진중보배	한국	수	5	52	이기회	김학수	홍준기

제 8경주 국3 1800M 핸디캡 일반 【출발 18:15】

번호	마명	산지	성별	연령	중량	기수명	조교사	마주명
1	철가면	한국	수	5	52	문정균	서홍수	조승민
2	정상천하	한국	수	4	55	문세영

IBK 50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믿을 수 있는 상조금융

IBK기업은행이 시작합니다

信



상조금도 국책은행이라 더 든든한
IBK기업은행에 맡기세요

IBK상조예금 상조적금

1. 상조서비스 5% 할인혜택 2. 7년간 물가보상 혜택 (無인상) 3. 喪事 발생 시, 특별 해지 이율 적용 4. 만기 후, 추가 금리 제공

1단계 IBK기업은행 방문 → **상조예·적금 가입**

2단계 제휴 상조회사로 전화 → **상조 상품 선택**

3단계 喪事 발생 시 → **상조회사로 연락** (서비스 이용 후 대금정산)

4단계 예·적금 해지 후 → **목돈수령** (대금정산확인서 지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